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해외 VC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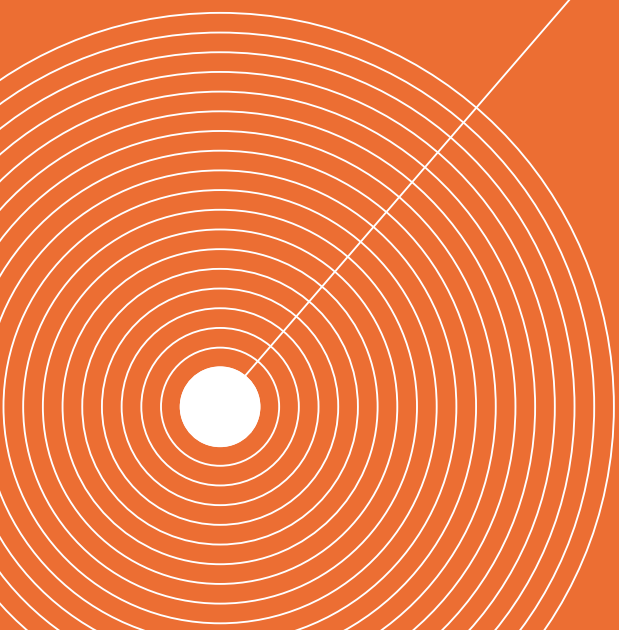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관련 유의사항

KVIC MarketWatch는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의 운용 성과를 공개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 또는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및 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이를 통하여 지득 또는 파생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복제, 변형,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Q 2021 VOL. 22

04 ←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18 ←  해외 VC
시장 동향

46 ←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발행처
한국벤처투자

발행인
이영민

문의사항
marketwatch@kvic.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편집·기획
한국벤처투자 www.kvic.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KVIC MarketWatch」는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운용하며 쌓아온 시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계간 저널입니다.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모태 출자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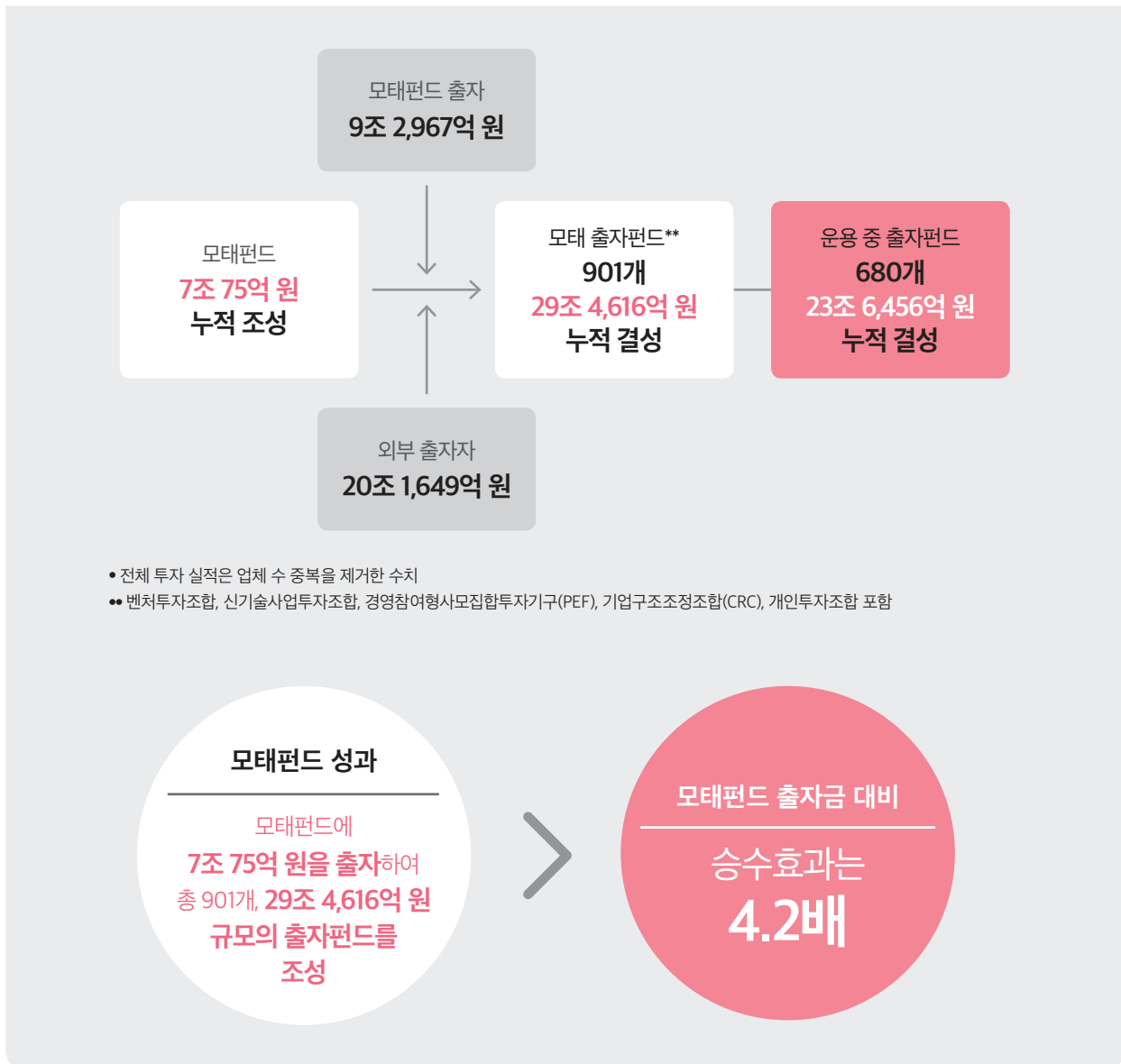
결성 /
투자 /
회수 동향 /

해당 보고서는 분기를
기준으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1년 1분기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모태펀드 개요

2021년 3월 말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총 7조 75억 원이며, 20조 1,649억 원의 외부 출자금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29조 4,616억 원 규모, 총 901개의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이중 운용 중인 출자펀드는 680개, 23조 6,456억 원 규모이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901개**의 출자펀드를 통해 7,572개사*에 총 22조 2,025억 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그림 1 모태펀드 운용 현황



모태 출자펀드 결성

♣ 2021년 1분기 모태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

2021년 1~3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20개, 1조 411억 원 규모이다.

이중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KTBN 18호(GP:케이티비네트웍)'로 2,810억 원 규모이다.

표 1 2021년 1분기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

(단위: 억 원)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중진	M&A	티에스 2020-13 M&A 성장조합	벤처투자조합	티에스인베스트먼트	1,193	320	1.4
중진	M&A	메티스톤 혁신성장 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PEF	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	915	320	1.4
중진	M&A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16호	벤처투자조합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750	300	1.4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대한민국 네이버-스톤브릿지 라이징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스톤브릿지벤처스	265	100	1.4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스프링 펀드	벤처투자조합	스프링캠프	280	100	1.4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스파크랩 클라우드 제1호 펀드	벤처투자조합	스파크랩	100	40	1.4
중진	스케일업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케이티비네트웍	2,810	500	1.4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현대그린뉴딜펀드	벤처투자조합	현대기술투자	230	160	1.6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대한민국 경동킹고 바이오펀드	벤처투자조합	킹고투자파트너스	270	100	1.6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AP-WE언택트펀드1호	벤처투자조합	위벤처스	273	100	1.8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무신사-한국투자 펀드 1호	벤처투자조합	무신사파트너스	202	50	1.14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마그나킹고 그린펀드	벤처투자조합	마그나인베스트먼트	252	70	2.1
중진	M&A	케이디비씨에이비즈엠엔에이 사모투자합자회사	PEF	에이비즈파트너스	1,000	400	2.8
지방	규제자유특구	대전규제자유특구 블루포인트 투자펀드	벤처투자조합	블루포인트파트너스	120	60	1.12
지방	규제자유특구	강원 피크닉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소풍벤처스	32	19	1.20
연구개발특구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특구펀드	벤처투자조합	대성창업투자	190	95	1.12
국토교통혁신	공유주택	이에스7호공유주택펀드	벤처투자조합	이에스인베스터	111	100	1.5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더웰스-이후IP기술사업화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더웰스인베스트먼트	575	175	2.17
보건	해외진출	K바이오글로벌헬스케어 사모투자합자회사	PEF	이앤인베스트먼트	700	105	1.29
해양	해양신산업	인라이트10호 오션스타펀드	벤처투자조합	인라이트벤처스	143	10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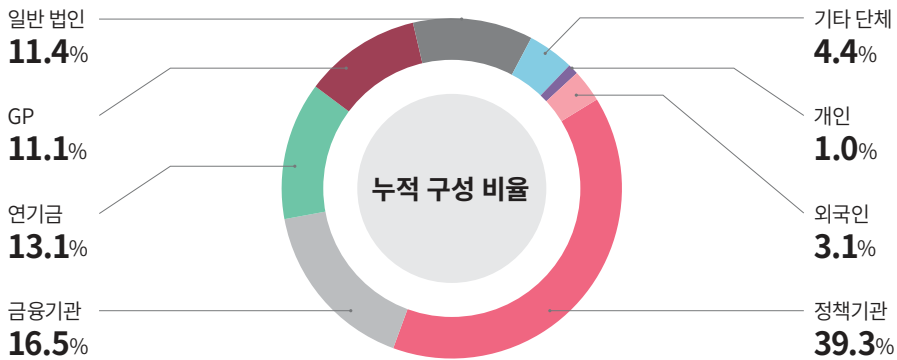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누적)

2021년 3월 말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누적)은 [그림 2], [표 2]와 같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11조 5,804억 원(39.3%)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4조 8,662억 원(16.5%), 연기금 3조 8,476억 원(13.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의 경우, 정책기관 다음으로, 연기금(2,150억 원), 금융기관(1,555억 원)으로 순위가 변경되었다.

그림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 %)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억 원)

구분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GP	일반 법인	기타 단체	개인	외국인	합계
2021.03	3,651	1,555	2,150	1,300	1,325	378	52	0	10,411
누적	115,804	48,662	38,476	32,650	33,642	12,868	2,929	9,014	294,616

조합원 구분	상세 분류(KVCA 기준 참고)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모펀드, 기금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연금, 공제회
GP	창투자, 신기술, LLC 등 업무집행조합원
일반법인	영리 목적의 법인
기타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개 인	일반 개인
외국인	외국소재 개인 및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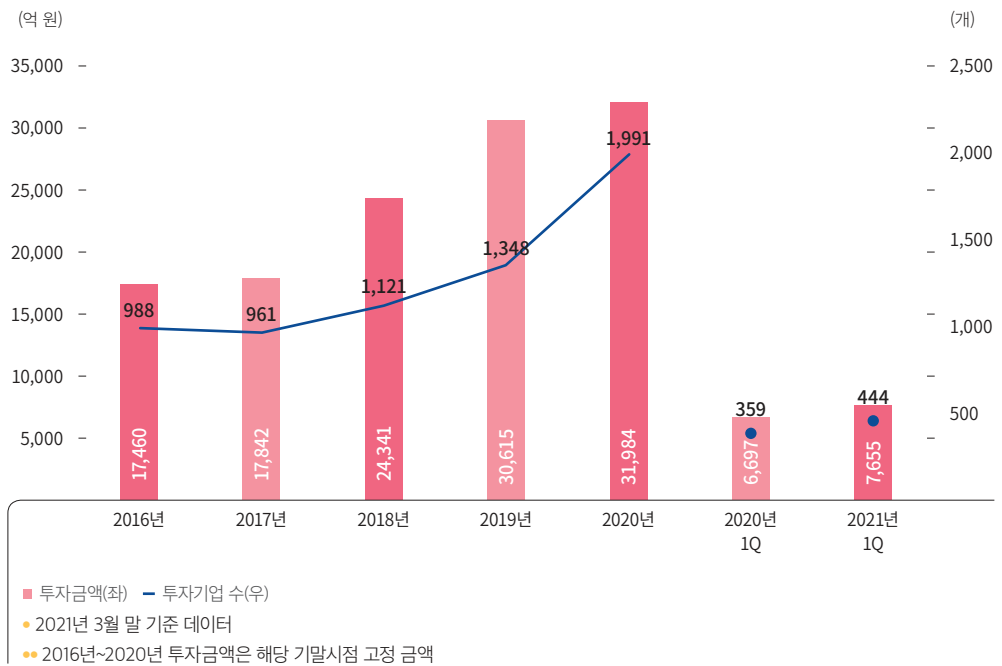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 투자

♣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

2021년 1분기 내 242개 모태 출자펀드가 444개 기업에 총 7,65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4.3% 증가, 기업 수 기준으로는 23.7% 증가하였다.

그림 3 최근 5년간 및 2021년 1분기 누적 투자 추이



출처 한국벤처투자

♣ 투자금액 상위 기업

2021년 1분기 동안, 모태 출자펀드에서 투자한 전체 투자 건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개의 투자기업당 1.3개 펀드가 17.2억 원을 투자하였다. 투자금액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15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주로 단일 펀드에서 집중 투자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금액 상위권 기업들의 업종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3 2021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금액 상위 10개사

(단위 : 개, 억 원)

순위	투자기업명	업종 분류(대)	업종 분류(중)	투자 출자펀드 수	투자금액
1	○○○○○	기타	목재/종이/인쇄/가구	1	271
2	인플루엔셜	ICT 서비스	소프트웨어	1	250
3	○○○○○	유통/서비스	도소매업	1	195
4	오픈엠티테크놀로지	ICT 제조	반도체/전자부품	4	160
5	○○○○○	바이오/의료	의료용 물질/의약품	3	150
6	○○○○○	유통/서비스	전문 서비스	1	136
7	○○○○○	전기/기계/장비	일반기계	1	125
8	○○○○○	게임	게임 소프트웨어	1	102
9	○○○○○	ICT 서비스	소프트웨어	1	100
10	○○○○○	화학/소재	금속	1	100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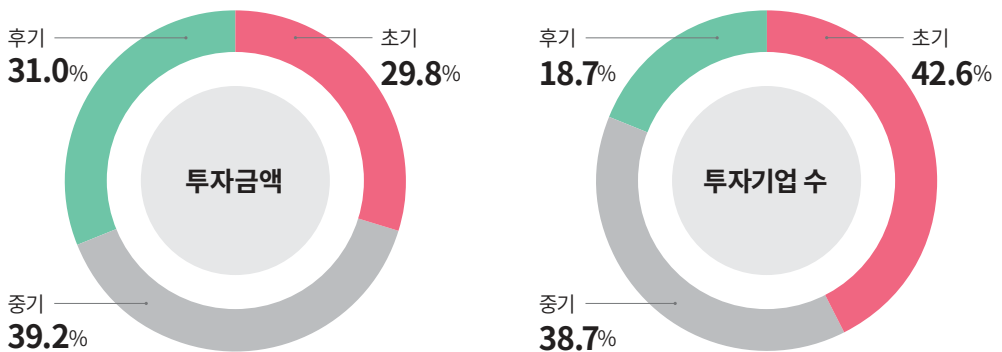
• 기업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을 비실명 처리함

♣ 업력별 신규 투자

2021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를 업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2,285억 원(29.8%), 3년 초과 7년 이하인 중기기업에 2,997억 원(39.2%), 창업 후 7년 초과된 후기기업에 2,373억 원(31.0%)이 투자되었다. 반면, 투자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기기업 189개사(42.6%), 중기기업 172개사(38.7%), 후기기업 83개사(18.7%)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약 투자기업 수가 약 109개가 늘어나며, 투자금액 또한 29.6% 증가한 7,655억 원을 기록하였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기업 수 기준으로는 편차가 있었다. 초기기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기업 수는 40개가 늘어난 반면, 투자금액은 오히려 152억 원 감소한 2,285억 원을 나타내면서, 기업당 투자금액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후기기업은 기업 수 증가분 대비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1% 오른 2,373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당 투자금액이 증가하였다.

그림 4 2021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출처 한국벤처투자

• 총 투자기업 수 444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업종별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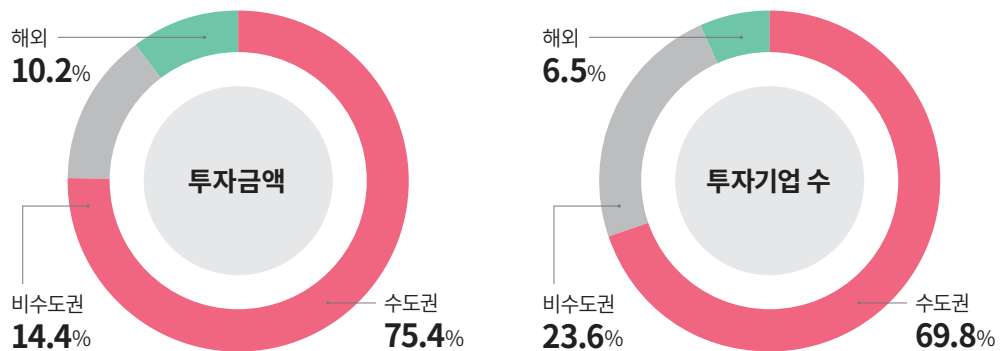
2021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 집중 추이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가 5,768억 원(75.4%)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는 1,106억 원(14.4%), 해외 소재 기업 투자는 782억 원(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214억 원이 줄어들면서, 투자금액 기준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수도권 내 투자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기지역의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6.9% 증가한 2,062억 원을 기록하였다. 절대적인 금액으로 기준으로는 수도권 내 인천지역의 비중은 작지만,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4배 이상 증가하며 296억 원을 기록하였다.

5대 광역시는 투자금액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전년 동기 대비 121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한 반면, 대전은 71억 원이 감소한 25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기타 지방은 46개 기업에 496억 원을 투자되며, 전체 지역 내에서 약 6.5%를 기록하였다. 경북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65억 원 감소한 35억 원을 기록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2020년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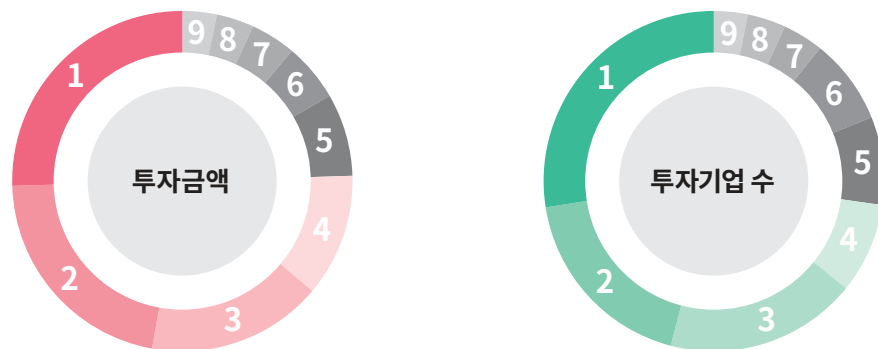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총 투자기업 수 444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지역구분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수도권-(5대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방)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세종

2021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여전히 바이오/의료 업종으로 총 1,945억 원이 투자되어 전체 투자 규모에서 25.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ICT 서비스 업종 1,661억 원(21.7%), 유통/서비스 1,278억 원(16.7%) 순으로 기존의 순위가 변동이 없었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ICT 서비스(27.5%), 유통/서비스(18.5%), 바이오/의료(18.2%)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화학/소재가 24.8억 원으로 타 업종 대비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하였다.

그림 6 2021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바이오/의료	25.4
2	ICT 서비스	21.7
3	유통/서비스	16.7
4	기타	11.7
5	전기/기계/장비	7.9
6	화학/소재	5.5
7	게임	4.3
8	영상/공연/음반	3.6
9	ICT 제조	3.3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 서비스	27.5
2	유통/서비스	18.5
3	바이오/의료	18.2
4	전기/기계/장비	8.6
5	기타	8.4
6	영상/공연/음반	8.2
7	게임	3.9
8	화학/소재	3.6
9	ICT 제조	3.2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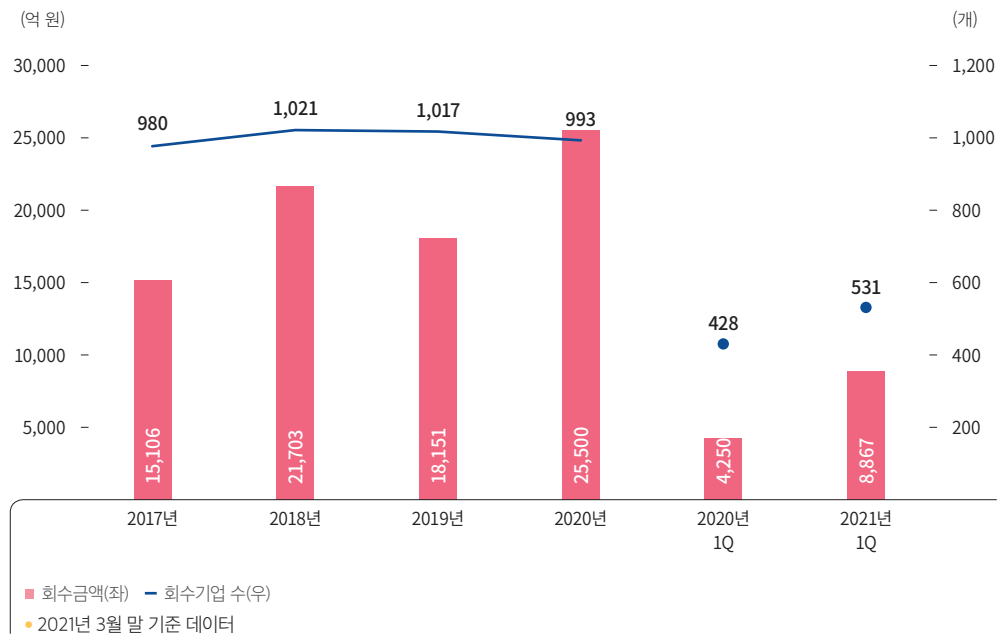
• 총 투자기업 수 444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모태 출자펀드 회수

♣ 모태 출자펀드 회수 동향

2021년 1분기에는 261개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531개 기업을 통해 총 8,867억 원(회수원금 2,525억 원, 회수수익 6,341억 원)을 회수하며, 투자원금 대비 3.5배의 회수 수익 배수를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108.6% 증가, 기업 수 기준으로는 24.1% 기록하였다.

그림 7 최근 5년간 및 2021년 1분기 누적 회수 추이



♣ 회수금액 및 업종별 회수 동향

2021년 1분기에 모태 출자펀드의 각 투자기업 회수 건 중 최대 회수총액을 기록한 건은 905억 원을 회수하였고, 투자원금 대비 최대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한 건은 54.3배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23.0%(2,042억 원), 전문 서비스 15.3%(1,359억 원), 의료용 물질/의약품 12.6%(1,121억 원), 게임 소프트웨어 11.7%(1,036억 원), 일반 기계 7.6%(678억 원) 순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

♣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IPO 현황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2021년 1분기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1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분기 말 현재 신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은 15개사다.

표 4 ____ 2021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신규 상장 현황

(단위: 억 원)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상장연월	공모금액(모집총액)	상장일 시가총액	주요 제품/서비스
자이언트스텝	코스닥	2008.06	2021.03	154	2,696	광고VFX, 영상VFX 및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제노코	코스닥	2004.11	2021.03	176	1,956	위성탐재체, 위성운용국, 항공전자 등
라이프시맨틱스	코스닥	2012.09	2021.03	125	1,711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진료기록 번역플랫폼, 질병분류기호 검색 소프트웨어
바이오다인	코스닥	1999.10	2021.03	300	2,521	액상세포검사 장비 및 소모품
네오이문텍	코스닥	2014.01	2021.03	1,125	14,119	면역항암제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코스닥	2015.06	2021.03	911	6,128	바이오시밀러 제조
나노씨엠에스	코스닥	2003.04	2021.03	160	944	근적외선 흡수/반사 안료, 자외선 유기형광 안료, 적외선 발광체
뷰노	코스닥	2014.12	2021.02	378	3,480	뷰노메드 음성솔루션, 뷰노메드 영상솔루션, 기타 솔루션 등
오로스테크놀로지	코스닥	2003.10	2021.02	399	5,083	반도체 Overlay 계측 장비
피엔에이치테크	코스닥	2009.08	2021.02	124	1,077	OLED 소재
레인보우로보틱스	코스닥	2011.02	2021.02	265	4,052	협동로봇, 천문마운트시스템, 이족보행로봇 등
와이더플래닛	코스닥	2010.07	2021.02	160	1,353	빅데이터/인공지능 마케팅플랫폼 및 데이터플랫폼
핑거	코스닥	2000.12	2021.01	208	2,572	스마트 금융 플랫폼, 핀테크 금융 솔루션
모비릭스	코스닥	2007.07	2021.01	252	3,378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씨엔투스성진	코스닥	2003.05	2021.01	512	2,638	에어필터, 산업용 및 보건용 마스크
엔비티	코스피	2012.09	2021.01	158	3,035	모바일 포인트 광고 플랫폼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 합병 제외,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표 5 2021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상장 추진 현황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연월	진행 상태	주요 제품/서비스
아모센스	코스닥	2008.11	심사 승인	모바일 기기 차폐 및 흡수시트, WPT
삼영에스앤씨	코스닥	2000.06	심사 승인	센서, 전기에너지저장소자
제주맥주	코스닥	2015.02	심사 승인	크라프트 맥주 제조
라운테크	코스닥	2000.03	심사 승인	반도체/FPD/Solar용 진공로봇 및 EFEM, Backbone
씨앤씨인터내셔널	코스닥	2013.10	심사 승인	색조화장품
에이치피오	코스닥	2012.04	심사 승인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진시스템	코스닥	2010.03	심사 승인	신속 현장 PCR 장비
오비고	코스닥	2003.03	심사 승인	차량용 애플랫폼
오에스피	코스닥	2004.06	심사 중	동물용 유기농 사료
맥스트	코스닥	2010.10	심사 중	증강현실SDK, 증강현실 엔진 라이선스
루켄테크놀로지스	코스닥	2007.10	심사 중	LCD/OLED용 테스트 장비
셀비온	코스닥	2010.07	심사 중	방사선 영상 조영제 (심뇌혈관)
에스디바이오센서	코스피	2010.12	심사 중	혈당측정기, 콜레스테롤분석장치, 당화혈색소분석기 등
레몬헬스케어	코스닥	2017.06	심사 중	병원 관리 소프트웨어
딥노이드	코스닥	2008.02	심사 중	반도체 제어반장비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 합병 제외,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해외 VC

시장 동향 /

해외 VC 시장 관련
해외 발간 보고서 내용을
분기별로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PitchBook,
KPMG, PwC, CB Insights에서
발간한 **2021년 1분기(1~3월)**
보고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Venture Monitor, 2021년 1분기)

• Venture Monitor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이하 NVCA)과 PitchBook이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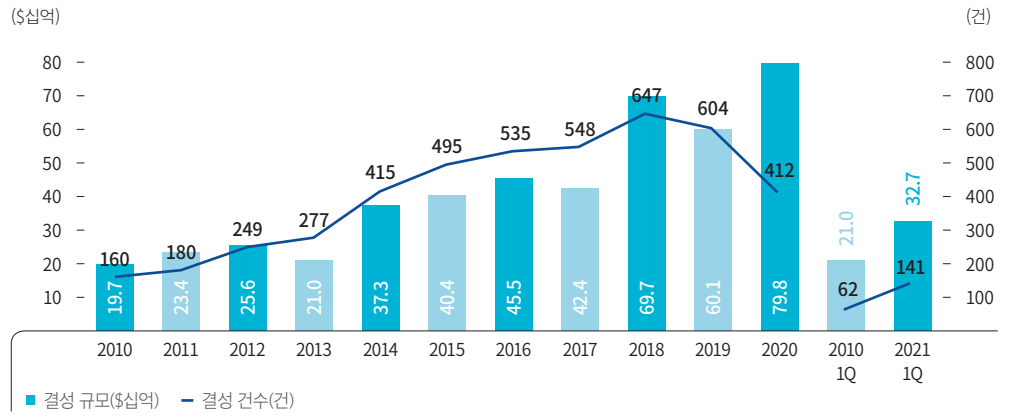
♣ 결성(Fundraising)

1분기 펀드 결성 규모는 총 327억 달러로 상승세가 강하였던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였다.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21년도에 처음으로 결성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러한 펀드 결성 규모 확대의 배경에는 작년 3,041억 달러 규모의 회수를 바탕으로 한 LP들의 재원 확보가 있었다. 작년 6월 말 기준 배분 금액은 480억 달러로 지난 3년간 온기 평균과 유사한 수준(494억 달러)으로 반기 만에 온기 배분 규모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로 테이퍼링 및 국제금리 금리 상승에 따른 LP들의 자산배분 전략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펀드 대형화도 지속되었다. 5억 달러 이상 규모의 메가펀드(Mega-fund)는 총 13개, 187억 달러 규모로 결성되었으며, 이는 1분기 전체 결성 규모의 57.3%를 차지하였다. 전체 펀드 결성 규모 중 메가펀드 비중은 작년 63.6%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19년 42.4% 대비 14.9% 상승한 수치이다. 메가펀드 중 10억 달러 이상 펀드는 무려 8개에 달하였다. 이에 반해 최초 펀드레이징은 총 25건, 전체 결성 규모의 4.3%에 해당하는 14억 달러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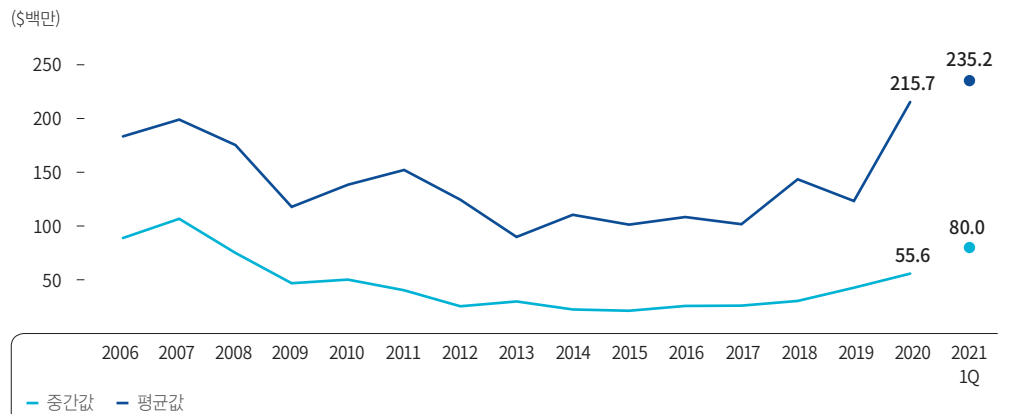
메가펀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펀드 결성 규모 중간값과 평균값도 오름세를 보였다. 펀드 결성 규모 평균값은 작년 온기 대비 9.1% 상승한 2억 3,500만 달러, 중간값은 작년 온기 대비 43.9% 상승한 8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1분기에 결성된 대표적인 메가펀드로는 TCV의 Fund XI(40억 달러), Bessemer Venture Partners의 Fund XI(25억 달러), Bond Capital의 Fund II(20억 달러)가 있었다. 1분기 펀드 클로징을 위해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11.6개월로 19년도 14.3개월, 20년도 13개월 대비 단축되었으며, 07년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그림 1 미국 VC 펀드 결성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2 펀드 결성 규모 중간값과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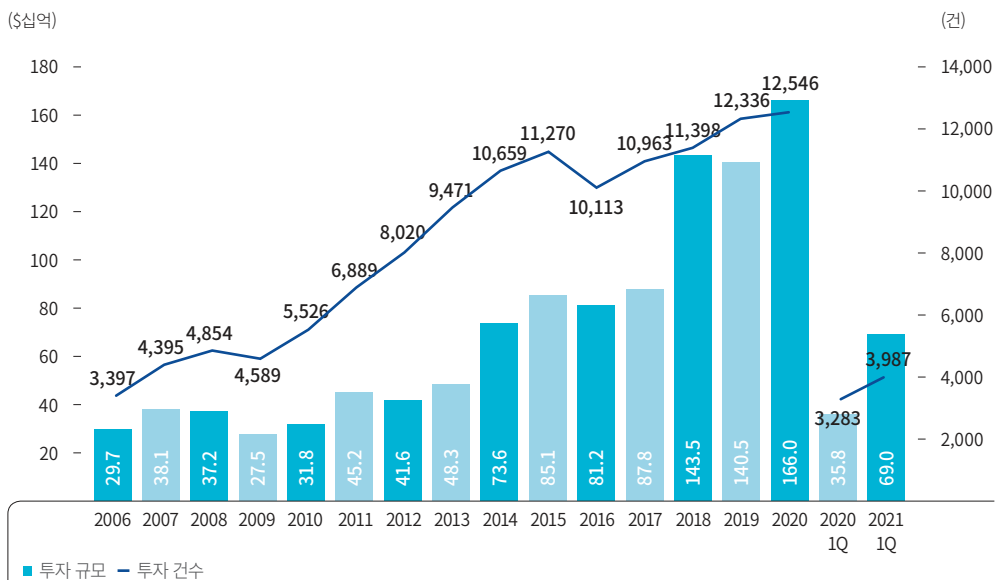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투자(Deal)

2021년 1분기 동안 총 3,042건의 69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2.7%, 직전분기 대비 53.4% 상승한 수치이다. 메가딜(Mega-Deal, 1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이 이제 주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메가딜 규모는 총 417억 달러로 전체 투자 규모의 60.3%로 작년 동기 비중 46.1%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20년도에 이루어진 766억 달러 규모의 메가딜의 절반 수준을 1분기 만에 달성하였다. 반면, 처음으로 VC투자를 유치하는 최초투자유치 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투자 건수 중 23.7%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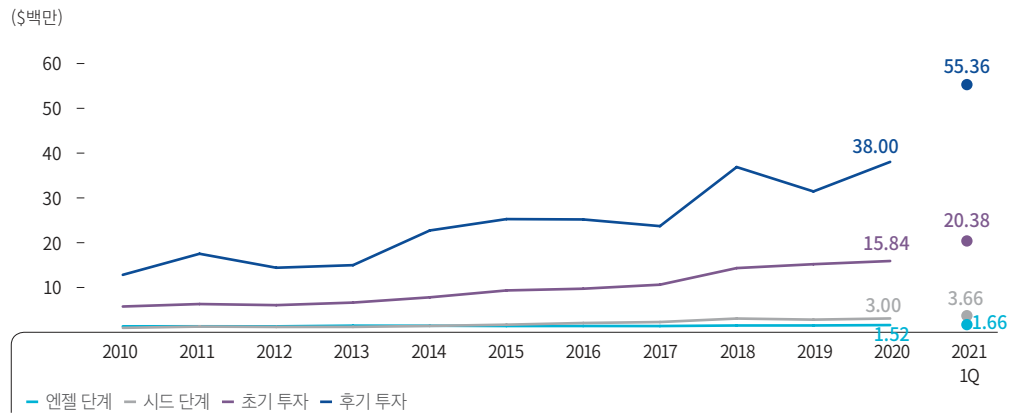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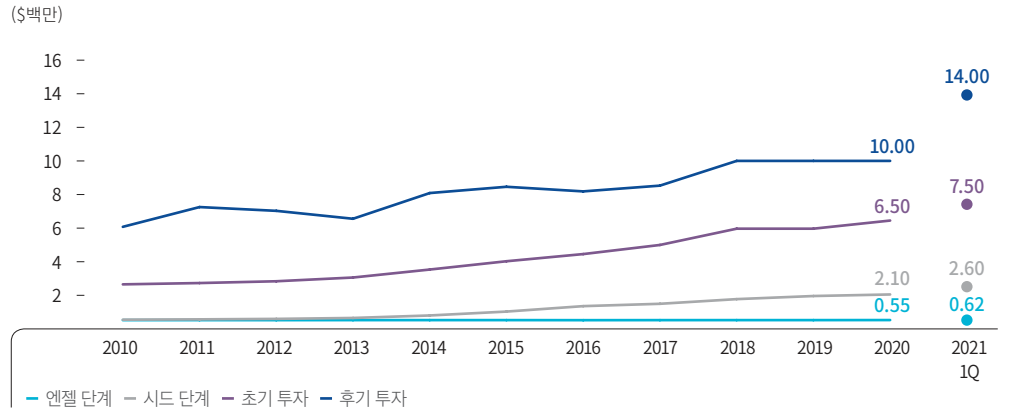
투자 단계(엔젤/시드, 초기, 후기) 유형별 동향을 살펴보면 시드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투자 규모의 상승을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엔젤 단계 68.7%, 초기 단계 40.3%, 후기 단계 124% 각각 상승한 반면, 시드 단계는 9.4% 하락하였다. 특히 후기 단계 투자 규모는 분기 실적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총 투자 규모 중 후기 단계 비중이 10년도 이후 최고 수준인 75.1%를 보였다. 단계별 투자 규모 평균값은 작년 동기 기준 대비 후기 단계 45.7%, 초기 단계 28.7%, 시드 단계 21.7%, 엔젤 단계 9.2% 상승하였다. Pre-Money 기준 기업가치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작년 동기 기준 대비 후기 단계가 231%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초기 단계와 엔젤 단계도 각각 81%, 109%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3 미국 VC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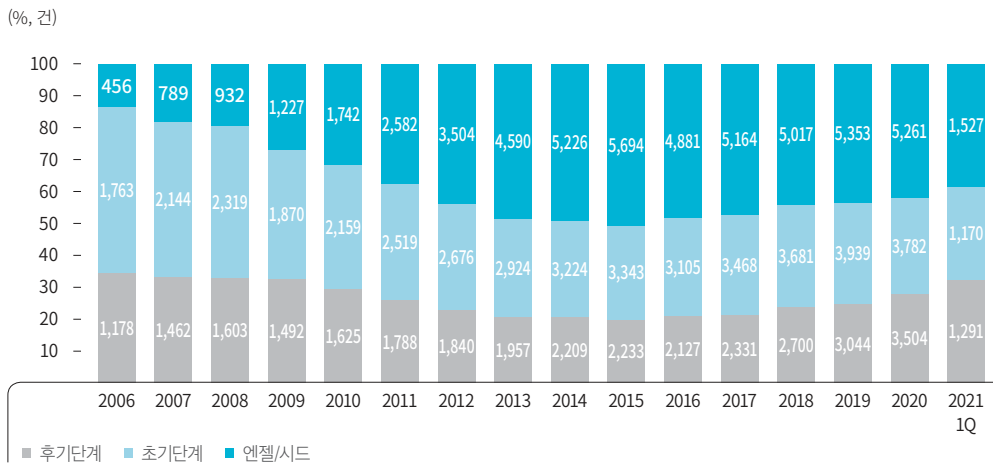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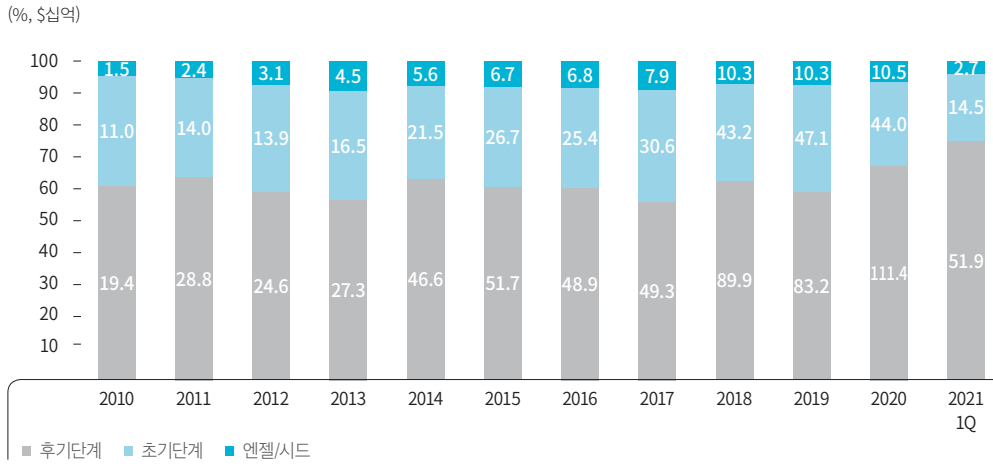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4 투자라운드별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상) 평균값(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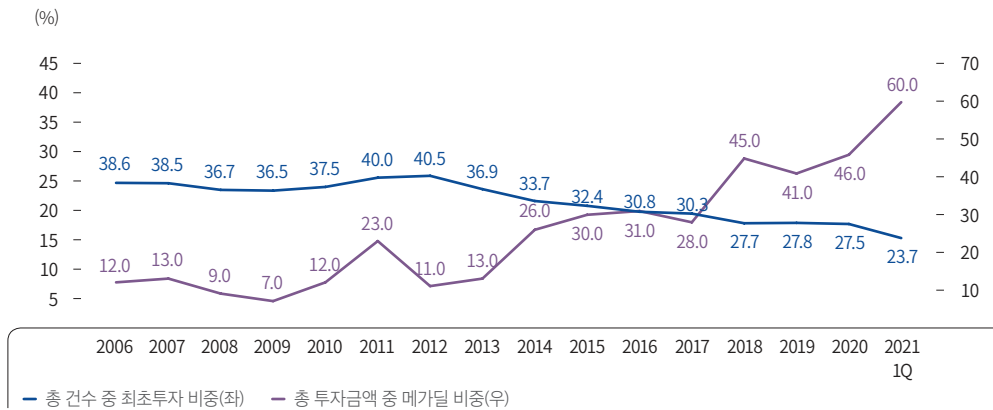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5 투자 단계별 투자 규모(상) 및 투자 건수(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6 최초 투자 유치 비중과 메가딜 비중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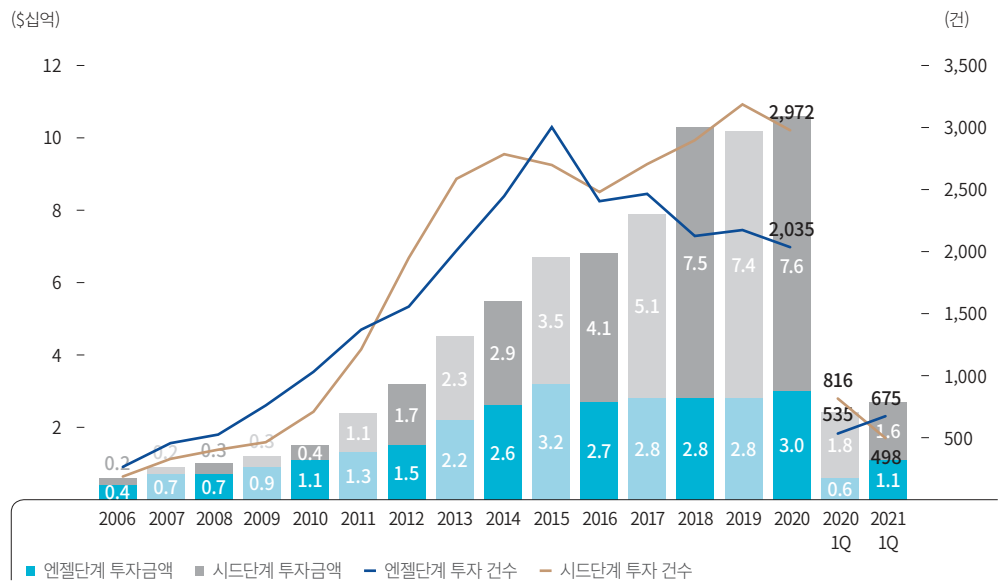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엔젤/시드 투자(Angel/Seed)

엔젤/시드 단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8.7% 상승, 9.4% 하락하였다.(엔젤/시드 단계 합계 기준 작년 동기 대비 11.5% 상승) 엔젤 단계는 처음으로 두 개 분기 연속 1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다. ('20년도 4분기 10억 달러, '21년도 1분기 11억 달러) '17년도부터 '20년도 3분기까지 평균 7억 달러 대비 약 50% 상승한 수치다. 비대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접촉 가능한 투자자풀(Pool)이 확대됨에 따라 엔젤 단계 투자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시드 단계는 기존 기관투자자들이 여전히 초기, 후기 단계에 집중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 이후 처음으로 투자기업 기업가치 평균값이 하락한 반면, 딜 사이즈 평균값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보다 더 많은 지분율을 얻고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추세는 1분기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시드 단계 투자 규모 중간값이 '20년도 2.1백만 달러에서 '21년도 1분기 2.6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기업가치 중간값은 7백만 달러로 변화가 없었다.

그림 7 미국 엔젤/시드 단계 투자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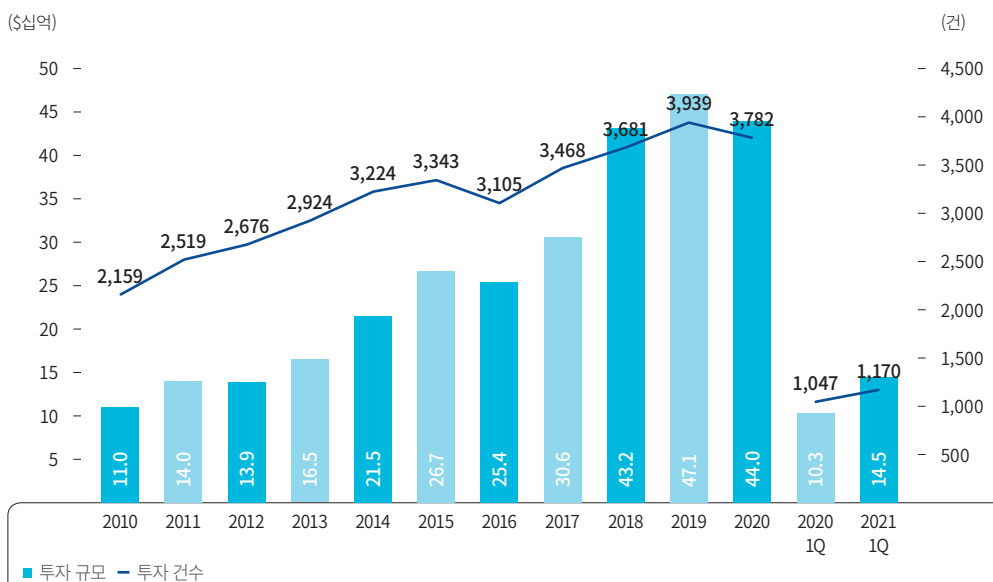
♣ 초기 VC 투자(Early-Stage VC)

초기 단계 투자 규모는 총 145억 달러 1,1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 기준 40.3%, 건수 기준 11.7% 상승하였다. 활황을 보였던 '18년~'19년 분기 평균 투자 규모인 113억 달러를 상회한 실적이다.

투자 규모 중간값과 평균값이 각각 7천 5백만 달러, 2억 4백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5.3%, 28.7% 상승하였다. 이는 대형딜이 상승하였기 때문인데, 2천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건수 비중이 20.9%로 작년 동기 기준 17.0% 대비 상승하였다. 2천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딜의 합산 규모는 105억 달러로 초기 단계 총 규모의 72.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기 기준 65.8%보다 약 7%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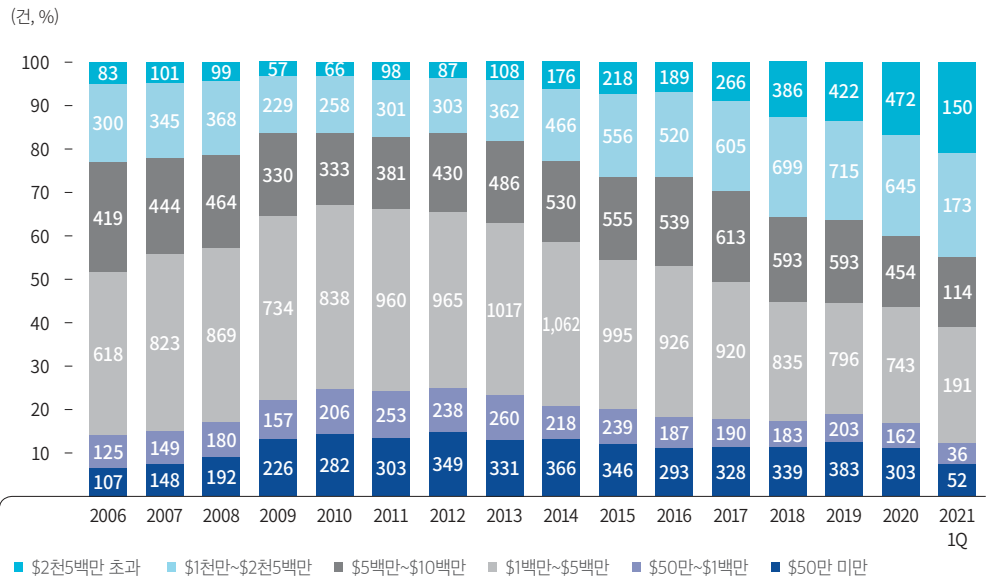
한편 처음으로 초기 단계 투자 건수가 후기 단계 투자를 하회하였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딜이 많은 초기 단계는 대형딜이 많은 후기 단계보다 투자 건수가 높게 나타난다. '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초기 단계 투자 건수는 후기 단계보다 30%~50% 많았으나, '20년 8%로 감소하였고, '21년 1분기 초기 단계가 후기 단계 건수보다 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후기 단계에 투자가 집중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21년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8 미국 VC 초기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9 초기 단계 투자 규모별 투자 현황(건수 기준)



후기 VC 투자(Late-Stage VC)

1분기 투자 규모는 총 5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상승, 직전 분기 대비 80.5% 상승함에 따라 분기 실적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1분기 미국 VC 시장의 총 투자 건수의 32.4%를 차지하는 후기 단계 딜이 총 투자 규모의 75.1%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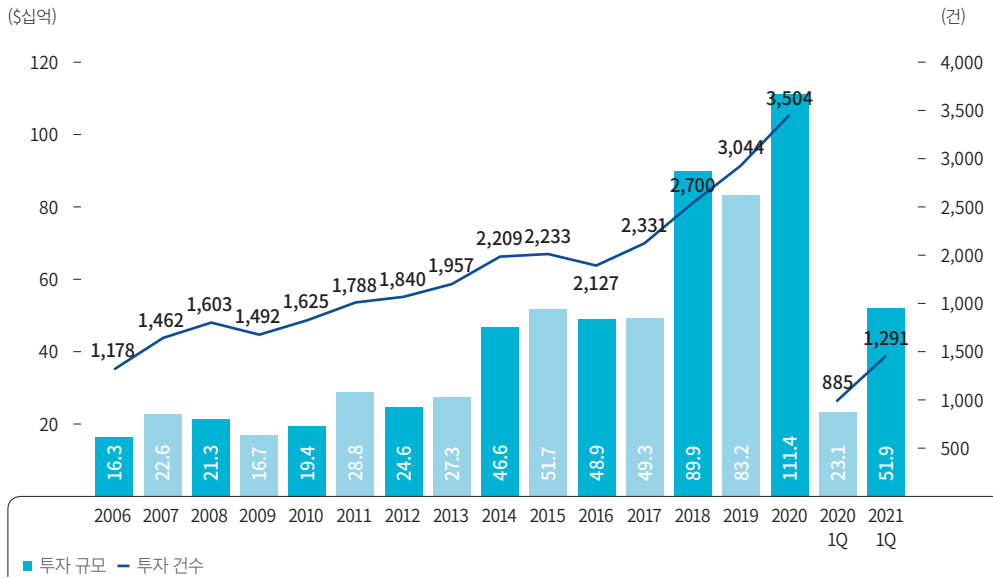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메가딜(Mega-deal) 투자 건의 83.8%(140건)가 후기 단계에서 발생한 만큼 후기 단계의 평균 투자 규모는 5천 54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5.7% 상승하였다. 2천 5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 건들이 후기 단계 총 투자 규모의 84.4%를 차지하였고, 이는 5년 전 대비 26.0% 상승하였다.

상승한 투자 규모만큼 후기 단계 투자기업의 기업가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Pre-Money 기준 평균 기업가치는 16.1억 달러로 작년 연평균 대비 230.7% 상승하였다. 중간값도 1.7억 달러로 작년 연평균 중간값 대비 126.7% 상승하였다. 대표적인 대규모 딜로는 주식거래 플랫폼 Robinhood의 34억 달러 투자유치, 전기자동차 업체 Rivian의 27억 달러 투자 유치, 핀테크 결제 플랫폼 Stripe의 6억 달러(Stripe는 기업가치 950억 달러로 미국의 VC 투자기업 중 가장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임)가 있었다.

이러한 후기 단계 투자 규모 확대의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해 증대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성공 가능성이 높은 후기 단계에 투자를 집중하는 현상이 있다. 또한, 최근 SPAC 공모 활황으로 투자자들의 회수 수단 저변이 확대된 영향도 있다. 한편, SPAC 투자 증가는 기존 VC 사모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를 공모시장으로 이전시키며 후기 단계 투자 규모 상승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년도 SPAC 공모 건수는 '19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248건을 기록하였는데, 2년 안에 합병 대상을 찾아야 하므로 앞으로 후기 투자 VC와 SPAC 간의 유니콘 기업 투자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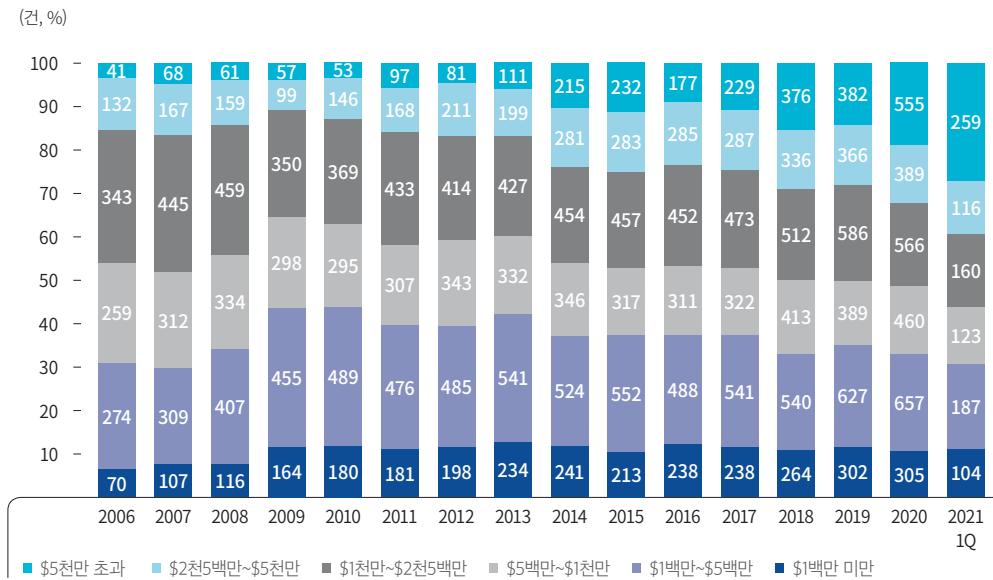
출처 : SPAC Insider

그림 10 미국 VC 후기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11 미국 VC 후기 단계별 투자 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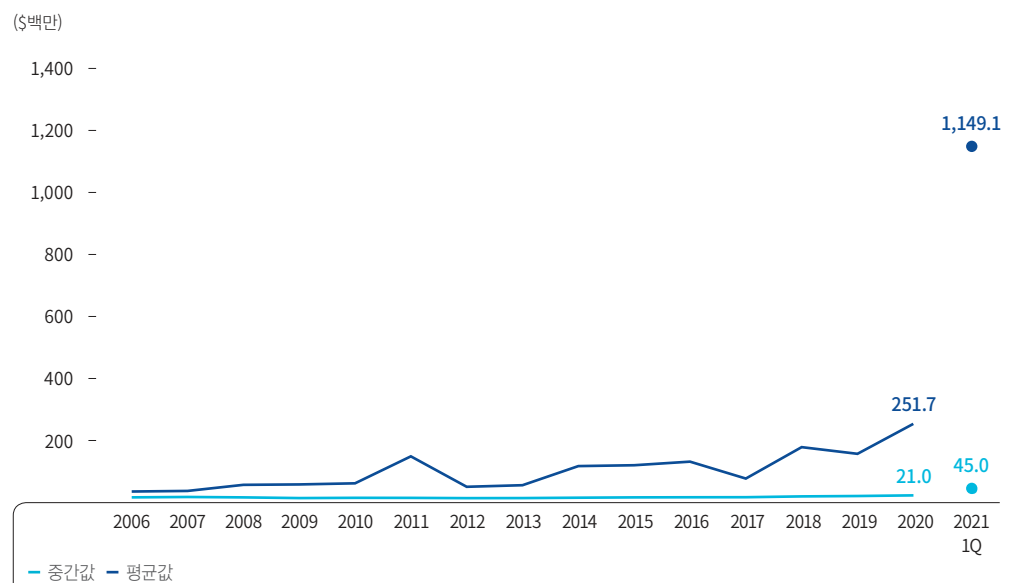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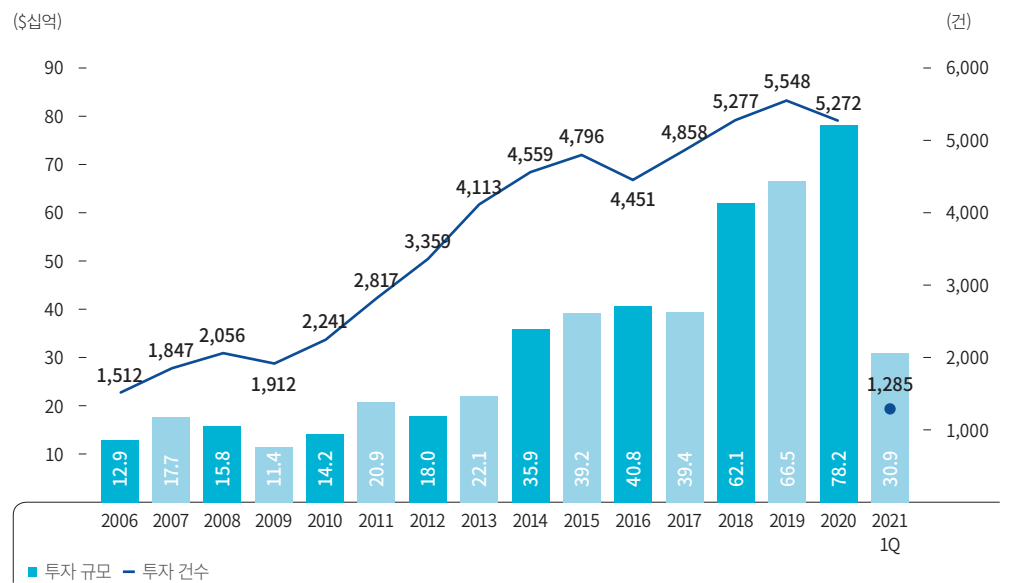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분야별 투자 현황

'21년도 1분기 동안 B2B 테크 분야에 1,285건의 309억 달러 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평균 투자기업 기업가치는 11억 달러로 소수 대형 투자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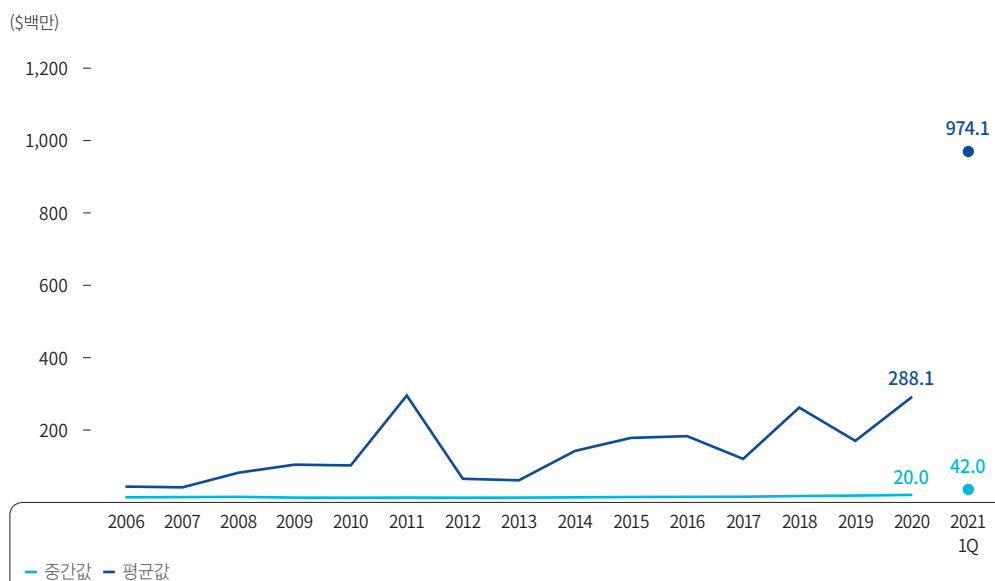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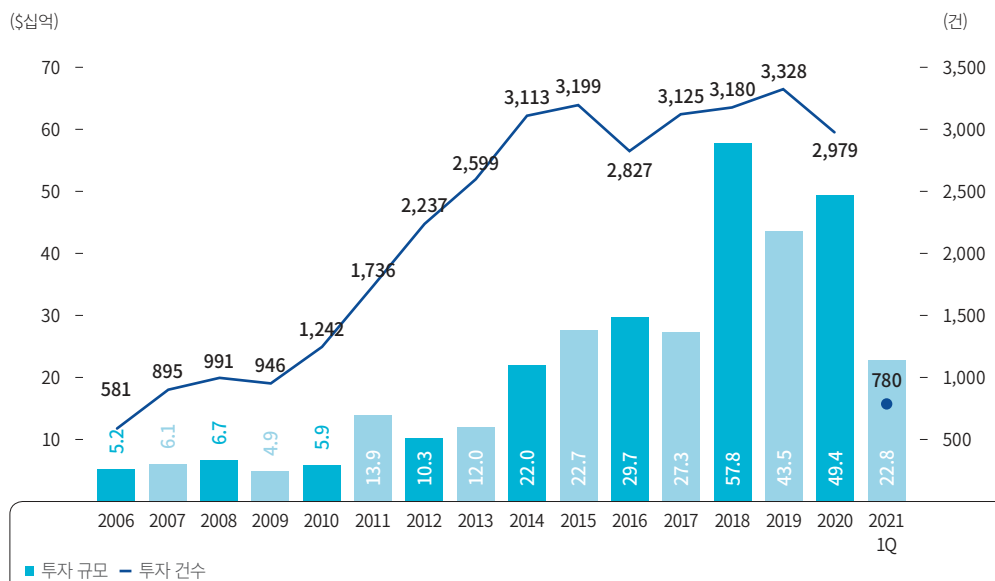
그림 12 미국 B2B 테크 투자 현황 : 연도별 투자 규모(상)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 평균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B2C 테크 분야에는 780건의 228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B2C 테크 분야 투자금액은 B2B 테크 분야의 74% 수준으로 B2C보다 B2B 투자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투자기업 기업가치는 9.7억 달러로 B2B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대규모 딜로 평균값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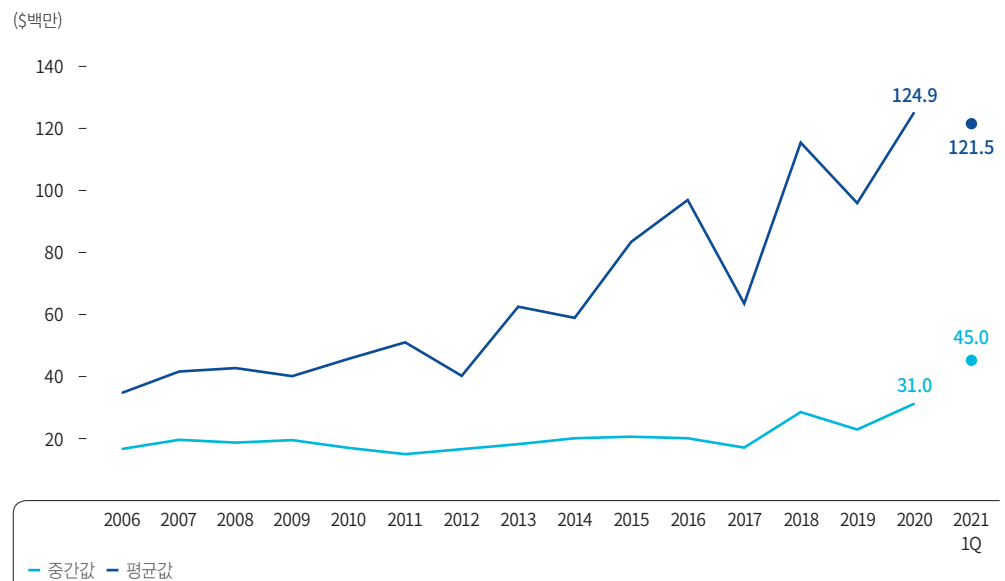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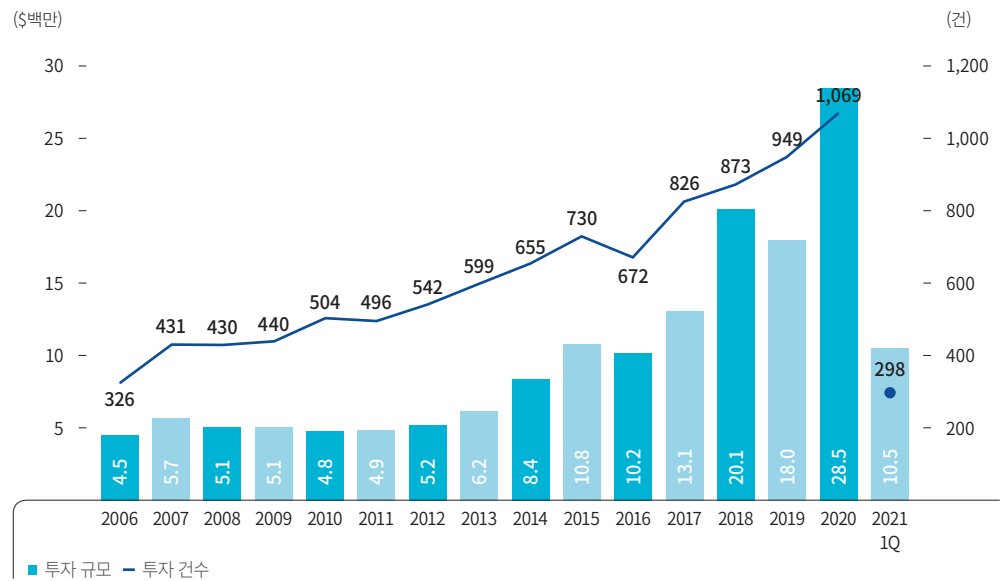
그림 13 미국 B2C 테크 투자 현황 : 연도별 투자 규모(상)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 평균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제약/바이오테크 분야에는 298건의 105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총 투자 건수 중 40%가 후기 단계에서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제약/바이오테크 분야의 IPO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후기 단계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 기업가치는 다른 섹터 대비 매우 낮은 1.2억 달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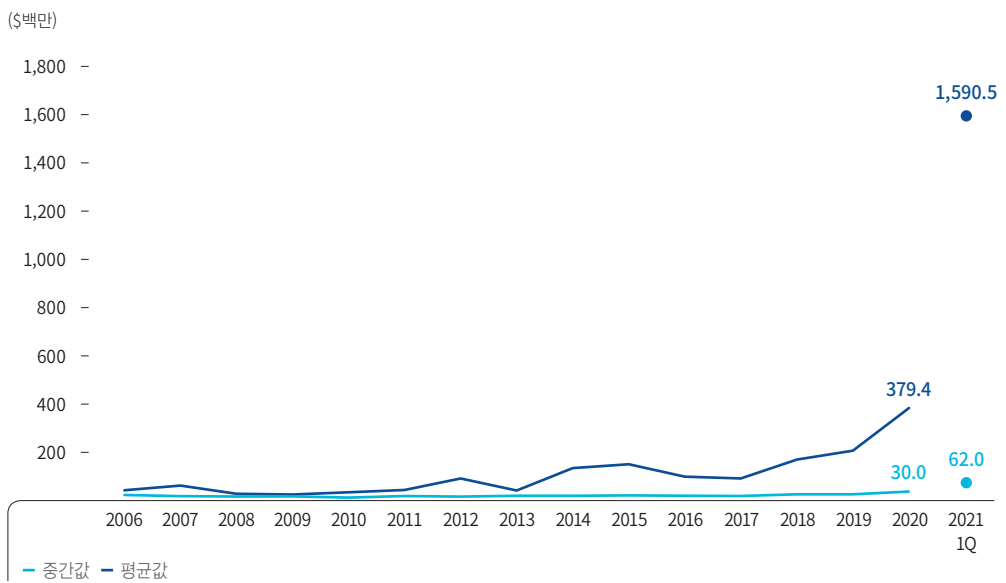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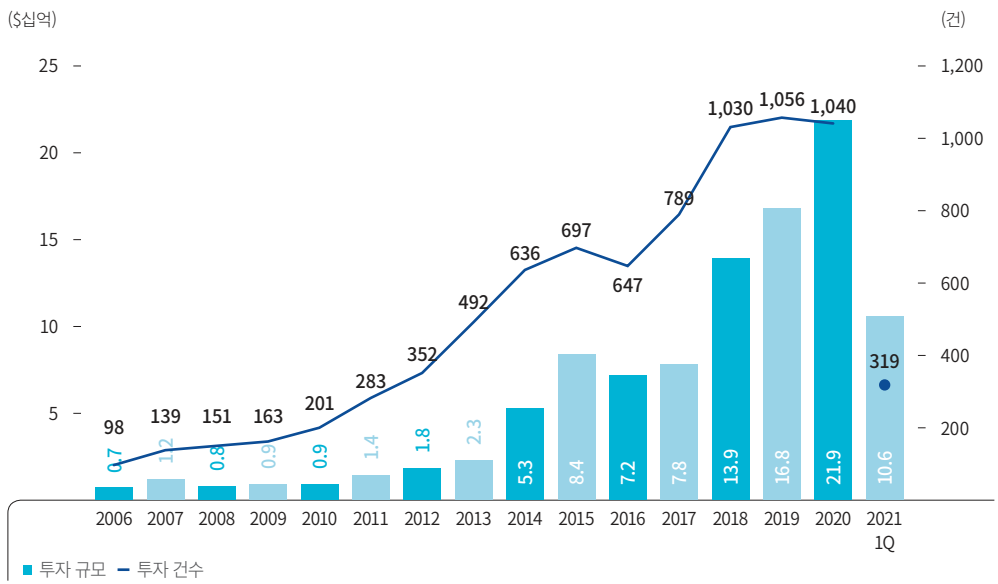
그림 14 미국 VC 제약/바이오테크 투자 현황: 연도별 투자 규모(상)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 평균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핀테크 분야에는 319건의 106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기업가치는 16억 달러로 B2B 섹터의 값을 상회해 4개의 주요 섹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Robinhood(\$34억), Stripe(\$6억), Sofi(\$3.7억) 등의 대규모 딜의 영향이다.

그림 15 미국 핀테크 투자 현황 : 연도별 투자 규모(상) 투자기업 기업가치 중간값, 평균값(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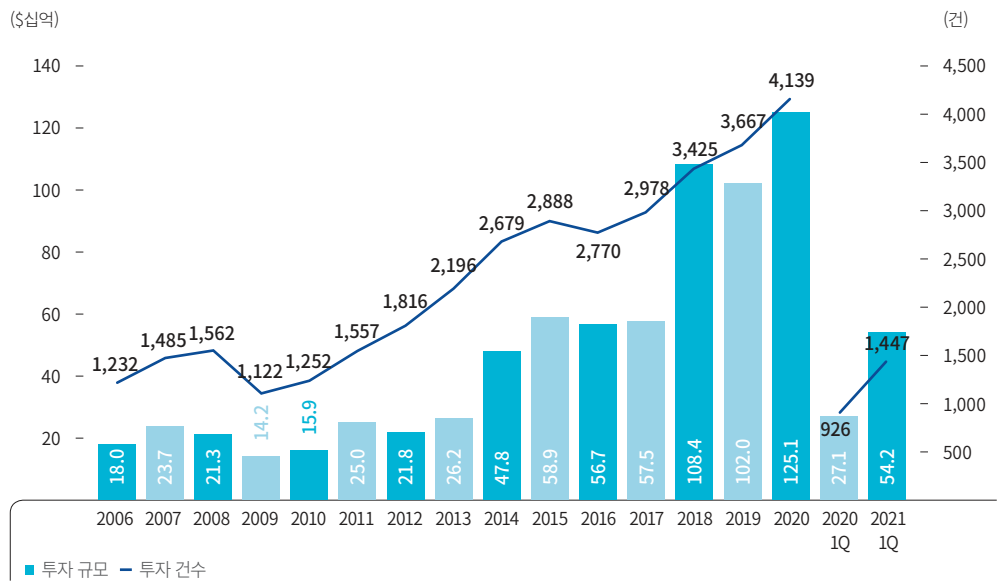
♣ VC 시장 내 투자자들(Alternative VC)*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엑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VC 투자 참여 증대는 최근 몇 년간 전체 VC 시장에서 펀드 결성 규모를 상회하는 투자 규모 상승을 견인해왔다. 20년도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1,251억 달러 규모 딜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같은 해 VC 펀드 결성 규모보다 무려 약 450억 달러 높았다. 이처럼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VC 딜에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IPO를 통한 VC 투자기업의 회수환경이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VC투자기업 67개가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IPO에 성공하였고 이는 '17년도 이전 10년간 건수보다 많은 건수이다. 또한, '21년도 상장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31억 달러로 '15년도 5억 달러에 비해 크게 올라 비상장 벤처기업의 투자 수요를 증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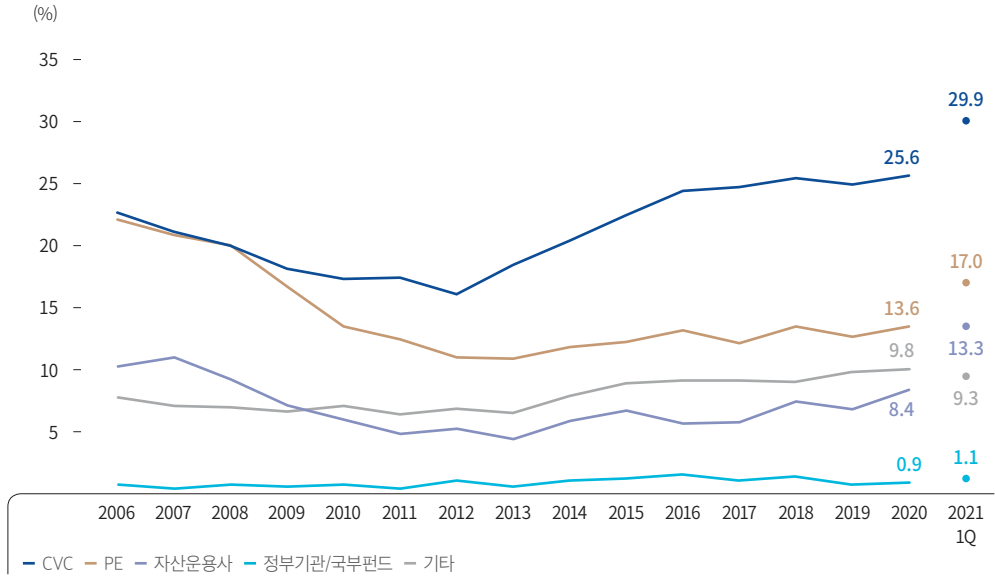
21년도 1분기 비전통적 투자자의 VC 딜 참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0.3% 상승한 총 542억 달러로 전체 VC 투자 규모의 78.6%에 해당하는 딜에 참여하였다. 미국 전체 VC 투자 건수의 32.4%, 투자 규모의 75.1%가 후기 단계에 집중되었는데,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이보다 더 후기 단계의 투자 비중이 높았다. 총 투자 건수의 52.7%, 투자 규모의 81.9%가 후기 단계에 속하였다. 비전통적 투자자 유형 중 CVC 투자자가 가장 활발히 VC 투자에 참여하였다. CVC 투자자는 전체 VC 딜 규모의 29.9%, 딜 건수의 47.0%에 해당되는 딜에 참여하였다.

그림 16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17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건수 기준)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회수(Ex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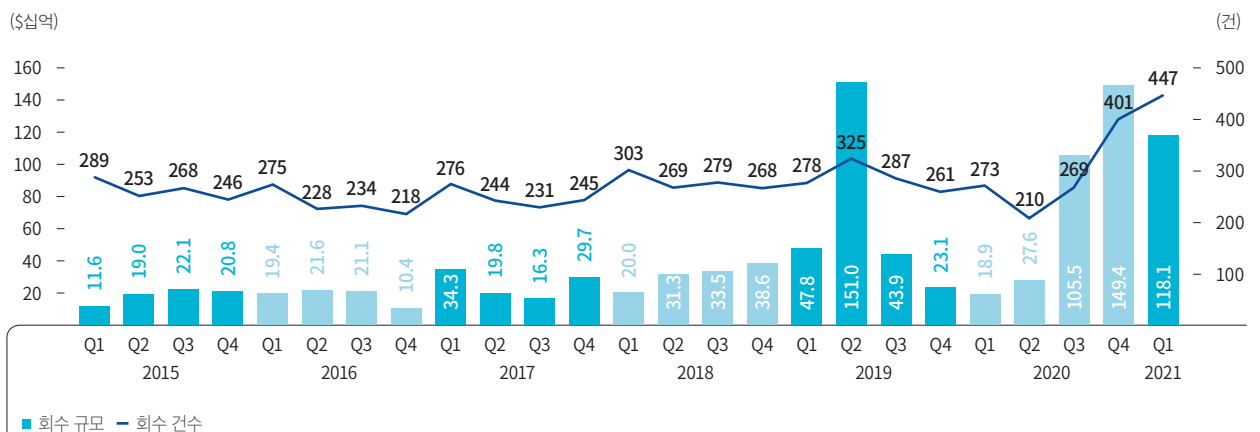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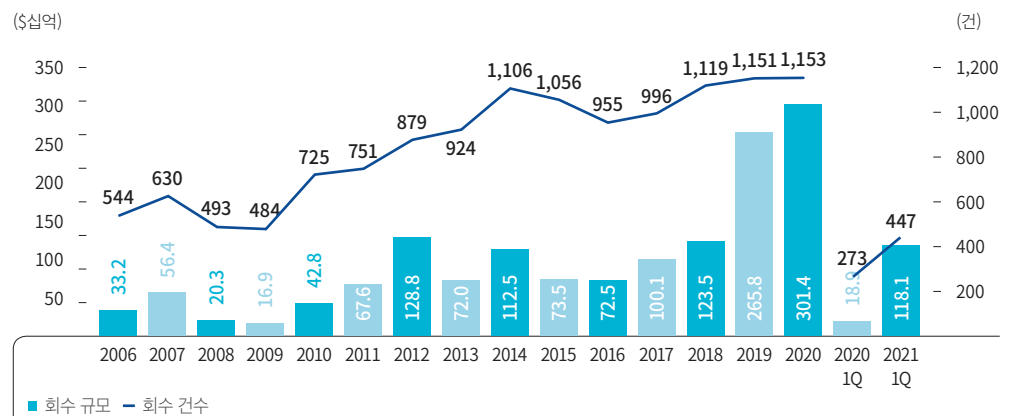
- M&A 관련 회수 규모(M&A value)는 보고되거나 공개된 값에 근거한다. IPO 관련 회수 규모(IPO value)는 IPO price로 계산한 기업의 프리머니 기준 기업가치이다.

1분기 회수 규모는 1,181억 달러로 코로나로 인해 부진하였던 작년 동기 회수 규모 대비 6.2배 증가하였다. 50개의 VC 투자기업이 IPO*에 성공하며 총 회수 규모의 90.1%가 IPO를 통해 발생하였다. 15~20년 동안 1분기 IPO 기업이 9~21개 수준인 것을 보면 얼마나 현재 공모 시장이 활황인지 보여준다. 대표적인 IPO건으로는 419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직상장에 성공한 온라인 게임 플랫폼 Roblox(NYSE :RBLX), 전통IPO 방식으로 106억 가치 상장한 후불결제 플랫폼 Affirm(NASDAQ:AFRM), 65억 가치로 상장한 건강보험 업체 Oscar(NYSE:OSCR) 등이 있었다. 50개의 IPO 회수기업중 24개 기업이 바이오테크/제약 분야였다.

SPAC 시장은 작년에 이어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만에 20년도 한 해 상장 건수를 초과하였다. 미국의 1분기 SPAC상장 건수는 총 275건으로 20년도 온기 248건을 상회하였다. 상장뿐만 아니라 SPAC의 비상장기업 인수도 상승세이다. '19년 28개에서 '20년 64개로 증가하였고, 1분기 19개 상장에서 진행 중인 기업은 107개로 나타났다.** 1분기에 이루어진 대규모 SPAC 합병으로는 대표적으로 의료보험 회사 Clover Health(NASDAQ: CLOV),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체 Chargepoint(NYSE: CHPT), 자동차 보험 업체 Metromile(NASDAQ: MILE), 스마트팜 AppHarvest(NASDAQ: APPH) 등이 있었다. 한편 최근에서야 SPAC 시장이 성장하면서 아직 다양한 투자환경에서의 SPAC 회수 성공사례가 부족하며, 매력적인 합병 대상 기업이 시장이 충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문은 존재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월 SPAC의 신주인수권을 특정 상황에서는 부채로 인식하도록 SPAC의 회계 감독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투자자 심리가 약화되어 향후 SPAC의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

- 본문에서 IPO는 전통 IPO, SPAC 합병을 통한 상장과 직상장을 포함한다.
- **「안정적인 대한민국 스타트업과 혼돈의 미국 SPAC」, 흥국증권, 2021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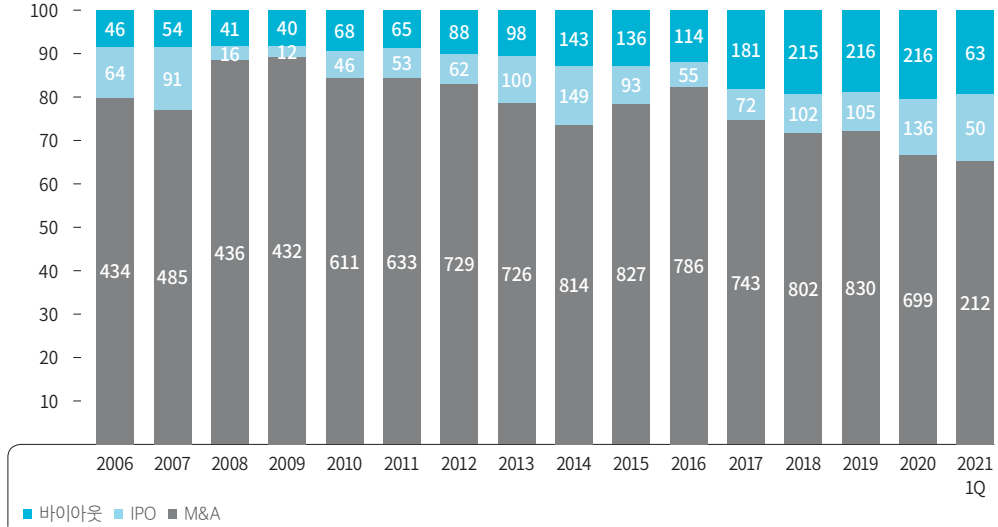
그림 18 미국 VC 투자기업 회수 현황 : 연도별(상) 분기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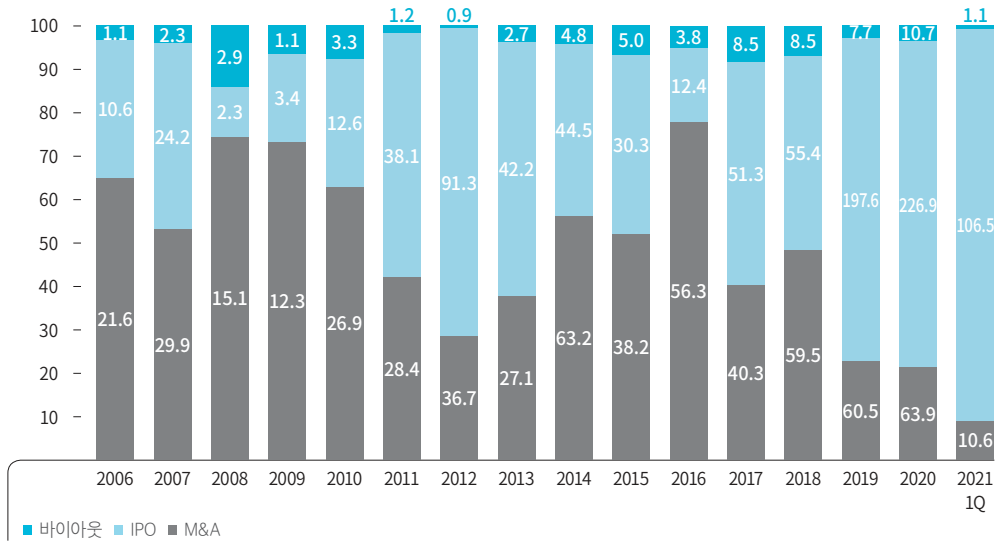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19 미국 VC 투자기업 회수 유형별 현황 (상) 건수 (하) 금액(합계 기준)

(건, %)



(\$십억, %)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European Venture Report, 2021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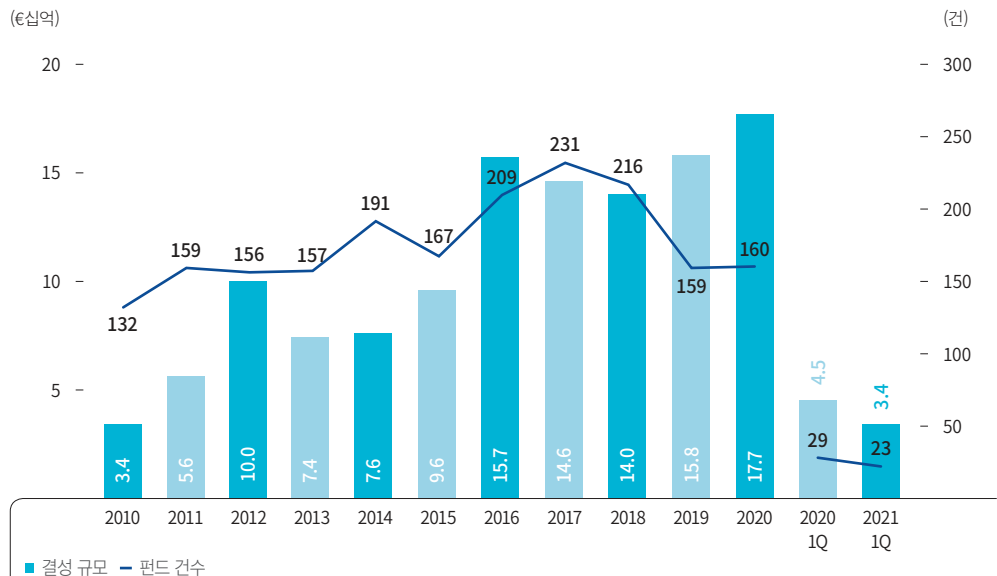
• European Venture Report는 PitchBook이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결성(Fundraising)

2021년도 1분기 유럽에서는 총 33.7억 유로, 23개 VC 펀드가 결성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 24.9% 결성 규모가 감소하였다. 유럽도 펀드 결성 규모 확대 추세를 이어나가 총 23개 펀드 중 절반 수준인 13개의 펀드가 1억 유로 이상 규모로 결성되었고, 이는 총 결성금액의 86.7%를 차지하였다. 한편 미국 VC 시장의 메가펀드(Mega-Fund) 기준인 5억 달러 이상 규모의 펀드는 2개 결성되는 데 그쳤다(미국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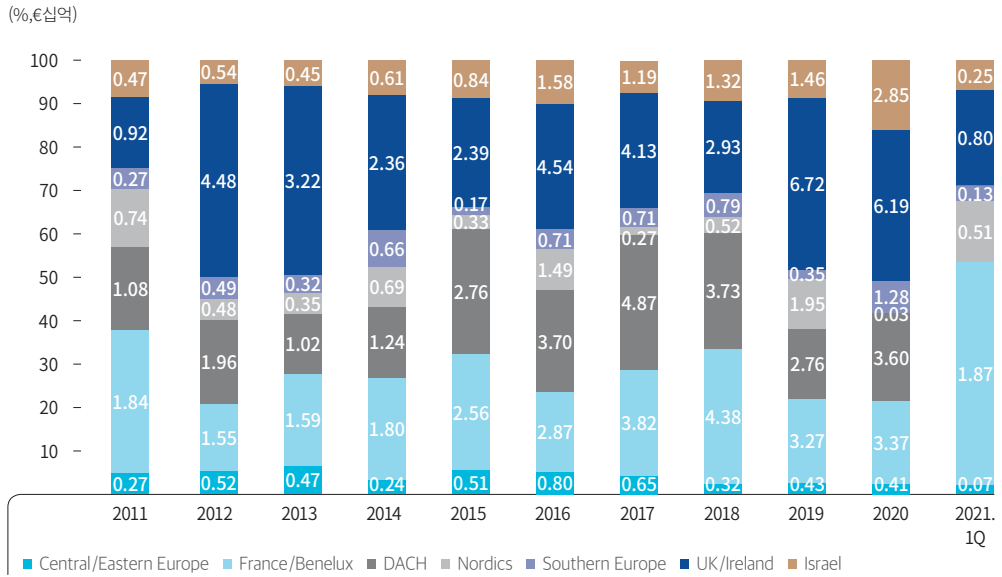
1분기에는 UK/아일랜드 지역에서 펀드 결성 건수(9건)가 가장 많았으나 결성금액 기준으로는 프랑스/베네룩스 지역에서 총 18.7억 유로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며 유럽 전체 결성금액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UK/아일랜드의 결성 비중이 가장 높으나, 1분기에는 프랑스/베네룩스 지역에서 Cathay Innovation의 6.5억 달러 규모의 대형 펀드가 결성되었다.

그림 1 유럽 VC 펀드 결성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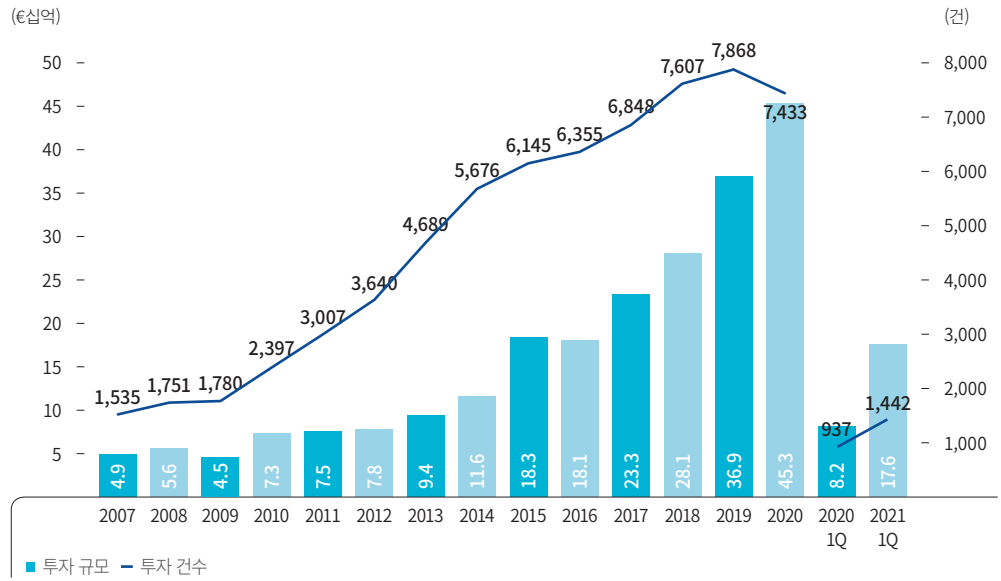
그림 2 유럽 VC 펀드 지역별 결성 현황(금액 기준)



♣ 투자(D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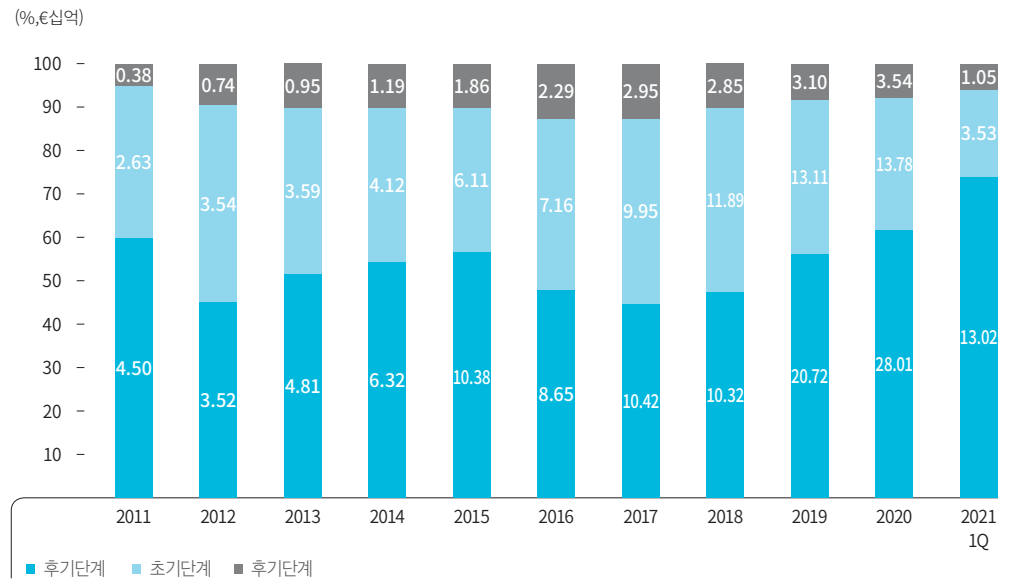
2021년 1분기 동안 총 1,907건의 176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전년 동기 대비 114.5% 증가한 금액이 투자되었다. 백신의 불안정한 보급, 코로나 확산 지속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VC 투자는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후기단계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전체 투자금액의 74.0%에 해당되는 130억 유로가 후기단계에 투자되었다. 대표적으로 Klarna가 256억 유로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11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이외 결제서비스 핀테크 업체 Checkout.com은 3.7억 유로를 유치하였고, 온라인 이벤트 플랫폼도 Hopin도 4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 한편 전체 투자 건수 중 최초투자 유치 비중도 미국과 유사하게 감소 추세이나 1분기 28.5%로 작년 동기 대비 2.3%p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3 유럽 VC 펀드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그림 4 유럽 VC 단계별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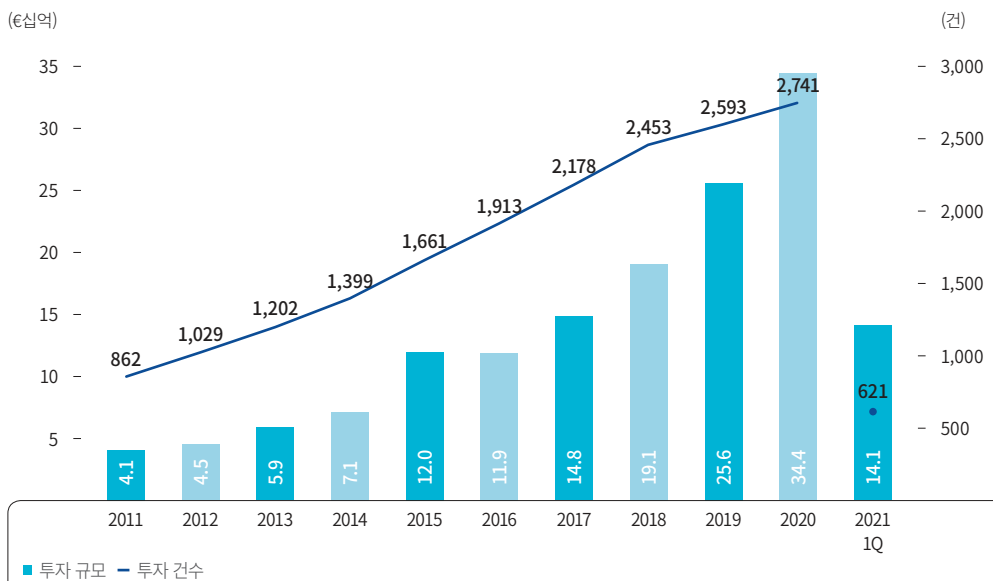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 VC 시장 내 투자자들(Alternative VC)*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투자가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1분기 유럽 내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딜 참여 규모는 140.8억 유로로 전체 투자금액의 80.0%를 차지하였다. 비전통적 투자자들도 일반 VC와 마찬가지로 주로 소프트웨어(37.8%), 바이오테크/제약(11.3%)에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내 탄소배출 규제 강화 및 ESG 투자가 최근 주목을 받으며 관련 투자도 증가세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Volocopter(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 수직 이착륙 항공기)은 자동차 업체인 Geely(중국)와 Daimler(독일)로부터 약 2억 유로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그림 5 유럽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적 투자자 참여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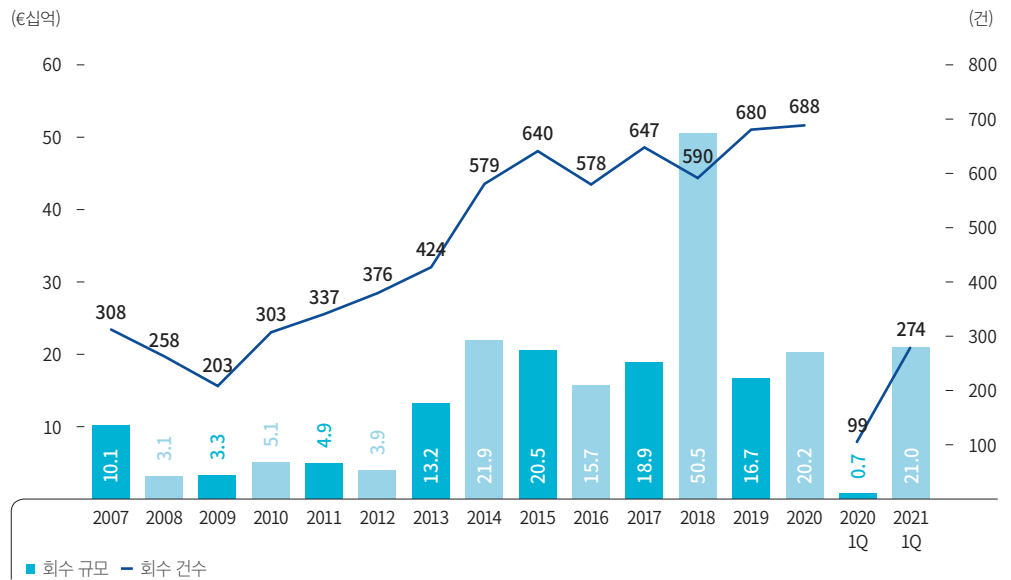
♣ 회수(Exit)

1분기 유럽 VC 시장에서는 놀라운 회수 실적을 보여주었다. 총 210억 유로, 274개의 회수가 발생함에 따라 1분기 만에 작년 한 해 동안의 회수 규모를 상회하였다. 35건의 173억 유로 규모의 신규 상장도 회수 확대를 견인하였다.

대표적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Deliveroo(LON:ROO)와 중고차 판매 플랫폼 Auto1(FRA: AG1)이 각각 66억 유로(Pre-Money기준) 가치로 IPO에 성공하였다. 딜리버리루는 런던증권거래소(LSE)에서 최근 10년 기준 가장 큰 규모로 상장한 업체가 되었는데, 최근 LSE는 복수의결권 제도, 상장심사 요건 등의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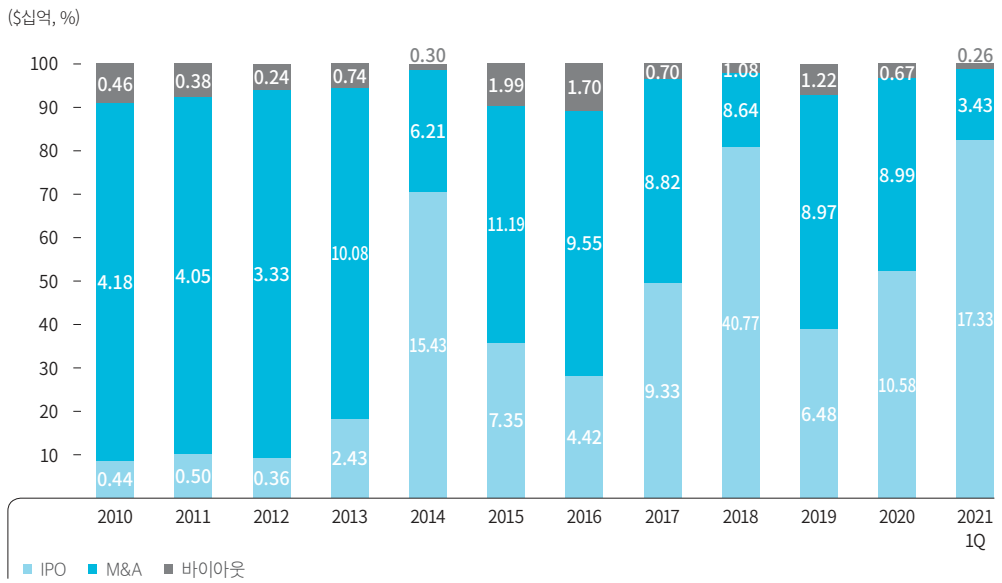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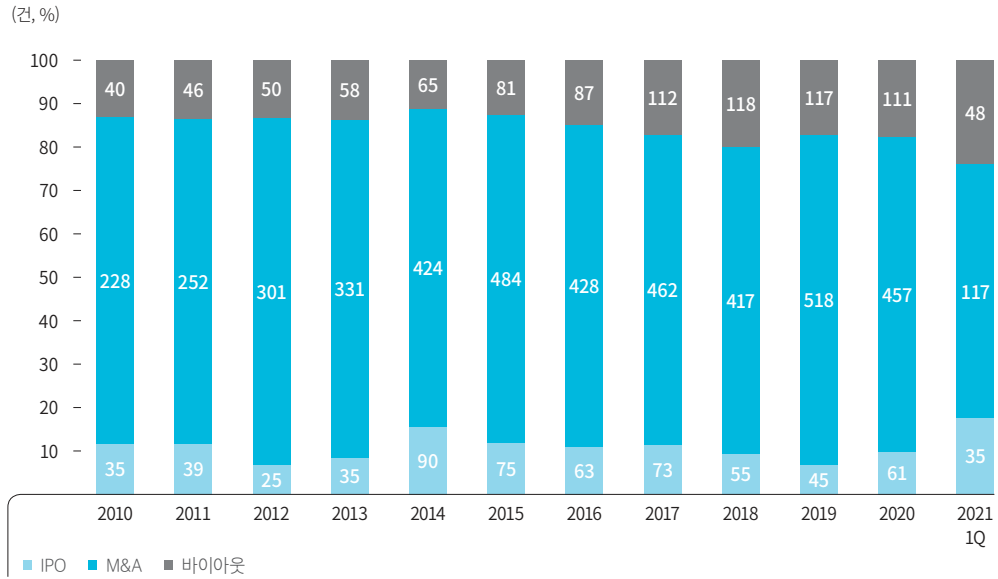
한편 미국 공모시장의 SPAC 증가는 유럽 기반 스타트업들의 회수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업체 Arrival(NASDAQ : ARVL)은 3월에 SPAC을 통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였고, 영국의 온라인 자동차 판매업체 Cazoo와 독일의 수직 이륙 및 착륙 전기 항공기 업체 Lilium도 SPAC을 통해 상장하였음을 지난 4월에 발표하였다.

그림 6 유럽 VC 투자기업 회수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그림 7 유럽 VC 투자기업 회수 유형별 현황 (상) 건수 (하) 금액 합계 기준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Venture Pulse Report, 2021년 1분기)

• Venture Pulse는 KPMG가 PitchBook Data를 기반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벤처캐피탈 시장 트렌드를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투자

2021년 1분기 한 개 분기 중 전 세계적으로 총 6,508건 1,269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건이 9건이나 발생하였다(표1) 지역별로는 북미/남미 지역 3,310건, 744억 달러, 아시아 지역 1,615건, 310억 달러, 유럽 지역 1,430건, 21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표 1 1분기 글로벌 투자 유치 상위 10개 기업

기업명	지역	산업 분야	투자 규모	투자자
Robinhood	미국	핀테크-주식투자앱	\$3.4B	Legendary Ventures, Fidelity Investments, Sequoia Capital 등
Xingsheng Youxuan	중국	유통-온라인 신선식품 플랫폼	\$3.0B	Tencent, JD.com, Capital Today 등
Rivian Automotive	미국	제조-전기차	\$2.65B	T.Rowe Price, Blackrock 등
Lalamove	홍콩	유통-배달 서비스	\$1.5B	Sequoia Capital China, Tencent Holdings, Hillhouse Capital 등
Klarna	스웨덴	핀테크-결제	\$1.3B	Visa, Ant Group, Walerud Ventures 등
goPuff	미국	유통-배달 서비스	\$1.15B	D1 Capital Partners, Accel, SoftBank Vision Fund 등
Pacaso	미국	프롭테크	\$1.075B	Global Founders Capital, Maveron, Fortress Investment Group 등
VillageMD	미국	헬스테크	\$1.025B	Walgreens Boots Alliance, Athyrium Capital Management LP, Oxeon Partners 등
Databricks	미국	빅데이터	\$1B	Andreessen Horowitz, Microsoft, NEA 등
SpaceX	미국	항공 우주	\$850M	NASA, Legendary Ventures, Bank of America 등

출처 Q1'21 Venture Pulse Report

♣ 유니콘

1분기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황을 보인 결과, 182개의 유니콘 기업에 총 49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는 전체 글로벌 투자금액의 40% 수준이다. '20년도 1년간 총 403개 유니콘 기업에 1,005억 달러가 투자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증가한 규모이다.

♣ 회수

1분기 총 2,840억 달러 규모, 667건의 회수가 발생해 '20년도 한 해 동안 회수된 규모의 60.2% 수준을 1분기 만에 달성하였다. IPO에 성공한 대표적인 딜로 한국의 Coupang, 독일의 중고차 플랫폼 Auto1, 덴마크의 소비자 리뷰 플랫폼 Trustpilot, 영국의 배달서비스 업체 Deliveroo 등이 있었다. 직상장(Direct-listing)도 지속적으로 중요 회수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 Roblox가 1분기 직상장하였으며, 4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Coinbase가 약 800억 달러의 가치로 직상장에 성공하였다.

유니콘 기업 현황

(CB Insights, 2021년 05월 14일 기준)

'21년 05월 14일 기준 The Global Unicorn Club에 따르면 35개국에서 672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였으며, 총 기업가치가 2조 1,85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CB Insights에 현재 등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유니콘 기업으로는 총 10개*로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면서 직전 분기 대비 1개 감소하였다. 등재된 기업으로는 쿠팡, 크래프톤(구 블루홀), 엘로모바일, 위메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무신사, 엘앤피코스메틱, GP클럽, 야놀자, 에이프로젠, 쏘카가 있다.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은 총 32개이며, 미국 15개 기업, 중국 8개 기업, 인도와 영국이 각각 2개 기업,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스웨덴, 호주에 각각 1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로 투자를 유치한 기업으로는 4월 센드버드, 스마트스터디, 5월 몰로코가 있었으며, 크로키닷컴(지그재그)이 카카오에 약 1조 원의 가치로 인수된다는 소식이 있었음.
- 센드버드는 한국 법인에서 미국 법인으로 플립(flip)하였으며, 몰로코는 미국 법인으로 최초 설립됨

표 2 국가별 유니콘 기업 개수 및 기업가치 총계

(단위 : 개, \$십억)

국가	유니콘 기업 개수	유니콘 기업 가치 총계
미국	350	1127.78
중국(홍콩 포함)	141	559.31
인도	32	111.25
영국	27	91.19
독일	16	28.63
이스라엘	13	17.47
브라질	12	42.45
프랑스	11	14.22
한국	10	21.69
캐나다	8	15
스웨덴	5	39.95
스위스	5	8
일본	5	6.4
호주	4	20.41
싱가포르	4	20.1
인도네시아	4	17.2
네덜란드	3	5.8

출처 CB Insights

- (KVIC 주) 3개 이상 유니콘 보유 국가 기재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모태 출자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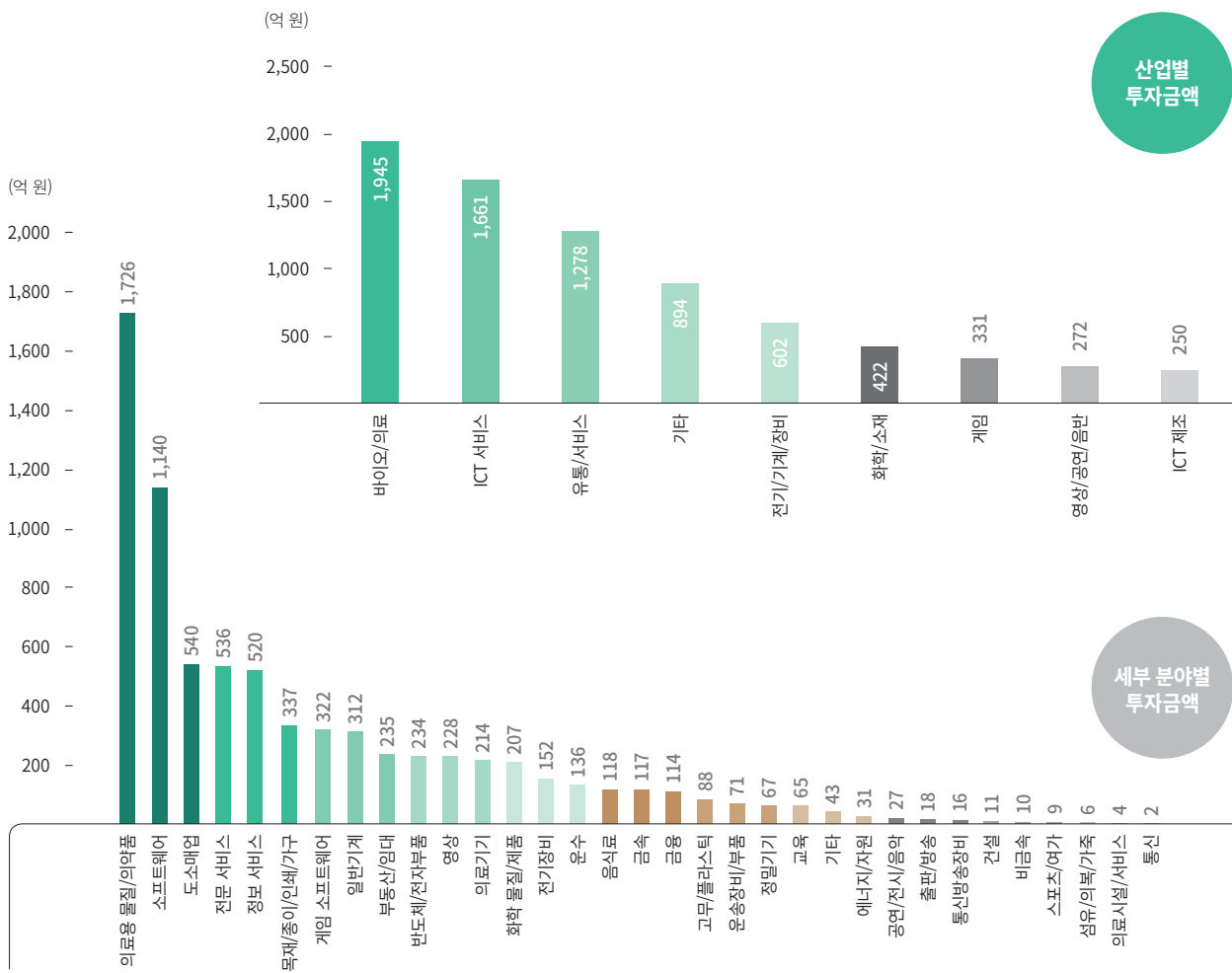
투자 산업 트렌드 /

해당 보고서는
분기별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1년 1분기(1~3월)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산업별 투자 동향

2021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는 444개(23.7% YoY)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 7,655억 원(14.3% YoY)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바이오/의료(1,945억 원, $\Delta 2.2\%$ YoY), ICT 서비스(1,661억 원, $\Delta 9.2\%$ YoY) 유통/서비스(1,278억 원, 43.3% YoY)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프로젝트에 1천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전체 투자금액의 63.8%를 차지하였다. 작년 동 분기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섹터는 ICT 제조(250억 원, $\Delta 31.0\%$ YoY) 산업이었으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섹터는 게임(331억 원, 65.0% YoY) 산업이었다.

그림 1 2021년 1분기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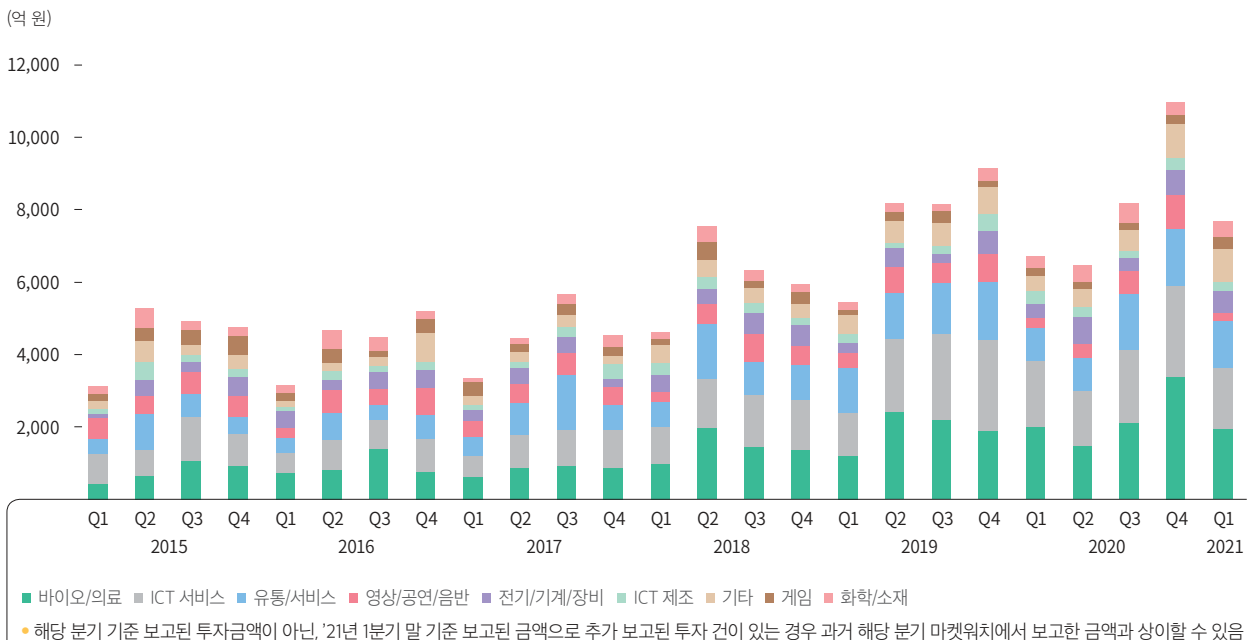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은 17.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였다.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화학/소재(24.8억 원), 바이오/의료(22.9억 원), 게임(18.4억 원)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업종은 영상/공연/음반(7.2억 원), ICT 서비스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메가딜(기업당 투자금액 합계 100억 원 이상)은 10건으로 직전 분기 14건 대비 감소하였으나, 작년 동기 3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포장재, 반도체 장비, 오디오북 서비스, 모바일 게임, 항암 신약 개발 등을 주요 제품 및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들이 1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그림 2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추이



지난 5년간 산업별 투자 규모 추이를 분기 기준 시계열로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가 타 산업 대비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년도 1분기 3개 분야의 투자 규모 비중은 52.4%였으나, 21년도 1분기에는 11.4%p 증가한 63.8%를 차지하였다.

표 1 2021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개)

분류	투자금액	투자기업 수	평균 투자금액
총합계	7,655	444	17.2
바이오/의료	1,944.6	85	22.9
의료용 물질/의약품	1,726.2	67	25.8
의료기기	214.4	18	11.9
의료시설/서비스	4.0	1	4.0
ICT 서비스	1,661.5	128	13.0
소프트웨어	1,140.0	84	13.6
정보서비스	519.9	47	11.1
통신	1.6	1	1.6
유통/서비스	1,277.8	86	14.9
도소매업	540.4	41	13.2
전문 서비스	536.5	32	16.8
운수	136.1	7	19.4
교육	64.8	7	9.3
기타	894.0	39	22.9
목재/종이/인쇄/가구	337.0	3	112.3
부동산/임대	234.7	6	39.1
음식료	118.1	12	9.8
금융	113.6	4	28.4
기타	43.4	6	7.2
에너지/자원	31.0	2	15.5
건설	10.7	2	5.3
섬유/의복/가죽	5.5	4	1.4
전기/기계/장비	601.9	40	15.0
일반기계	311.7	12	26.0
전기장비	152.2	13	11.7
운송장비/부품	71.0	8	8.9
정밀기기	67.1	7	9.6
화학/소재	422.4	17	24.8
화학물질/제품	207.0	11	18.8
금속	117.4	2	58.7
고무/플라스틱	88.0	3	29.3
비금속	10.0	1	10.0
게임	330.9	18	18.4
게임 소프트웨어	322.4	17	19.0
스포츠/여가	8.5	1	8.5
영상/공연/음반	272.5	38	7.2
영상	228.0	34	6.7
공연/전시/음악	26.5	3	8.8
출판/방송	18.0	1	18.0
ICT 제조	249.8	15	16.7
반도체/전자부품	233.8	12	19.5
통신방송장비	16.0	3	5.3

출처 한국벤처투자

• 기업 수 합계는 중복 제거 수치

표 2 2021년 1분기 산업별 주요 투자 KEYWORDS

<p>바이오/의료</p>	<p>#3차원 세포 배양칩 #9가 HPV 백신 개발 #녹내장 치료제 #AI 신약개발 #CAR-T 세포 치료제 #DDS를 이용한 유전자치료제 및 항암제 개발 #miRNA 기반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및 진단방법 개발 #RNA 및 유전자 기반 바이오의약품 플랫폼 #T세포 치료제 #간암치료제 신약개발 #갱년기 치료 건기식, 치료제 개발 #과사성 염증 및 미토콘드리아 타겟 치료제 개발 #구제역 백신용 면역증강제 #급성출혈치료제 연구 및 개발 #엑소좀 기반 치료제 개발 #나노 약물전달체 #녹내장 치료용 임플란트 #단백질 분해 기술(PROTAC)을 이용한 신약개발 #디지털 덴티스트리 #마이크로 니들 기반 백신 및 치료제 #무독성항암제 #근육성장 저해 인자 중화항체 유도물질 #바이오시밀러 #부정맥치료용 전극카테터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 #빌리루빈 나노입자 #아디포넥틴 기반의 대사질환 신약개발 #안구건조증신약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치료제 #액체생검을 이용한 체외진단용 시약, 키트 개발, 제조, 판매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 #재생성 모발 및 피부 재생물질 #줄기세포 배양액(배지) #지방감소주사제 #치주질환치료 생분해성칩 개발 #타겟 단백질 분해제 개발 기반 신약개발 #탈모 및 대사성질환 치료제 #폐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표적 단백질 개발 #항노화 및 QoL 분야 의약품 개발 #항암신약 및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개발 #항체신약 연구 및 개발 #휴대용심전도측정기</p>
<p>ICT 서비스</p>	<p>#3D 콘텐츠 플랫폼 #AI 데이터 레이블 #AI 기반 초·중·고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AI 로보 어드바이저 #AI 자연어처리 기반 B2B SaaS #AI 기반 의학영상진단 SW개발 #AI 기반 희귀질환 진단 #AI의료영상 플랫폼 #건설현장 및 플랜트현장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CCTV 영상 딥러닝 #E스포츠 토너먼트 플랫폼 #코딩교육 플랫폼 #공유 전기자전거플랫폼 #화장품 고객 후기 분석 B2B SaaS 플랫폼 #가구 B2B 풀필먼트 서비스 #뷰티샵 비교검색 서비스 #개인사업자 타겟 세금 환급 서비스 #공간 공유 플랫폼 #글로벌 명품 편집샵 모음 플랫폼 #심부름/배달 플랫폼 #뉴스 큐레이션 어플리케이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디지털 교육 콘텐츠 및 비대면 교육 관리 솔루션 공급 사업 #디지털 자산 로보어드바이저 #렌탈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마트 연계 식자재 O2O 플랫폼 #모바일 기반 3D AR/VR 콘텐츠 공유 플랫폼 #물류창고 재고관리를 위한 자율주행 드론 서비스 #번호사중개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온라인 명품 커머스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고보상금 산정 #소셜 기반 경제 미디어 #시니어 생활/여가 온디맨드 서비스 #신용카드 매출정산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약국 플랫폼 #영어독해 서비스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및 콘텐츠 제작 #온라인 셀러 업무 솔루션 #인테리어 시공 커머스 플랫폼 #인플루언서 커머스 솔루션 #임신육아용품 추천서비스 #자동차보안 토탈 솔루션 #자율주행차량 솔루션 #중장기 체류 외국인(관광객) 숙박 중개 서비스 #증권 관리 플랫폼 #집수리 전문 중개 플랫폼 #창작물 쇼핑물 #청소대행플랫폼 #커뮤니티 기반의 어학 학습 서비스 #음악 영상 기반 SNS 플랫폼 #태양광 발전 사업 플랫폼 #태양광발전사업 플랫폼</p>
<p>유통 서비스</p>	<p>#4050 모바일 패션 커머스 #신선식품 크로스보더 물류 서비스 #소규모 공간 임차 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플랫폼 #약국프랜차이즈 #글로벌 온라인 화장품 유통 플랫폼(B2B/B2C) #냉장새벽배송 대행 #도보 배달 대행 플랫폼 #돌봄교육 플랫폼 #동네마트 연계식자재 O2O 플랫폼 #마시는 차 큐레이션 키트 정기구독 서비스 #명품 해외 직구 플랫폼 #미디어커머스 #반려견 1:1 맞춤식사 O2O 정기배달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용품 판매업 #베트남 역직구 #비대면 교육 플랫폼 #숙소 종합관리서비스 #스마트 물류 창고 시스템 #여행플랫폼 서비스 #온라인원격 PT 서비스 #대체육 #음식물쓰레기 수거 #자동차 정비 관제관리서비스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콜드체인 소재 제조 #프로젝터형 엘리베이터 광고 기기/플랫폼 #홈클리닝 중개 서비스 #화장품 해외유통</p>
<p>영상/공연/음반</p>	<p>#OTT 드라마, 영화 제작 #강의 콘텐츠 영상 #공연기획, 제작, 영화홍보마케팅 #숏폼 콘텐츠 기획 및 개발 #방송프로그램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웹툰 제작/게임 개발 #음악 데이터 분석 솔루션</p>
<p>기타</p>	<p>#천연염색 #음료밀키트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별 맞춤 영양제품 #건강기능성식품 #곤충단백질사료 #공유주거 #기계식주차장 IoT운영 솔루션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제조 #베이비 캐리어#수산물 전문 커머스 #커피캡슐 #코리빙스페이스 #폐기물 수집 운반 및 폐기물 처리 관련 SW 개발업</p>
<p>화학/소재</p>	<p>#기능성 특수 폴리머 시트 #나노소재 #남성용 화장품 #바디케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세탁세제 #음식폐기물 처리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친환경 불화탄소 #탄소섬유 #화장품 OEM/ODM/OBM 제조 #화학 살균제</p>
<p>전기/기계/장비</p>	<p>#3D 비전 검사장비 #B2B/B2C 차량 출장 정비 서비스 #LED조명 #MEMS 센서 #고성능 정밀광선형법시스템(INS) #각형 세라믹 밀봉 패키지 #고효율 태양광 패널 #정전압식 공기정정기 #인테리어 소품 제조 #드론서비스 제공 및 산업용 대형 멀티콥터 #로보틱스 키친 #머신비전(Machine Vision) 및 화상처리를 통한 디스플레이 검사 S/W 개발 및 장비 제작 #무인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S/W 및 H/W 개발 #보리막 코팅 #선박 건조 #성인용 보행보조기 #셀프스팀세차기 #수소연료전지 #아동용 학습기기 #에틸렌 제거용 공기 정화장치 개발 #우주 발사체 연구 개발 #캠핑용 운수보일러 우의 #탈모이식 치료과정 자동화기기 #펫 스마트체중계, 자동급식기 #하수관막힘방지시스템</p>
<p>게임</p>	<p>#하이퍼 캐주얼 게임 #가상공간 건축디자인 #게임 리퍼블리싱 #모바일 게임 MMORPG #피트니스 플랫폼 #키보드 테마</p>
<p>ICT 제조</p>	<p>#AI 보안로봇 #딥러닝 연산 가속 IP #NFC Chip #RF Filter 개발 및 생산 #SSD Controller #광통신 및 반도체 소자의 광신호 연결 #반도체 IP라이선스 #반도체 Submemory system IP #정전용량 센서IC #화재알림시스템 #초고속 통신용 반도체 집적회로 #코로나19 POCT 기기 #심혈관질환 POCT 기기</p>

출처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